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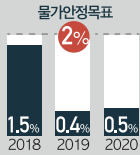
# Ⅲ

## 업무 현황

1. 중기전략	35
2. 통화신용정책	36
3. 금융안정	45
4. 발권	53
5. 지급결제	58
6. 외환 및 국제협력	63
7. 조사통계	71
8. 국고 및 증권	78
9. 대외 커뮤니케이션	84

# 2020 한국은행

## 통화신용정책 수행



물가안정목표 운용상황 점검  
(6월 · 12월)



기준금리 인하  
(3월 ·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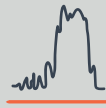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 유동성 공급

전액공급방식 RP 매입,  
비은행 RP 매입 등



### 국채 · 회사채 · CP 시장 안정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도입(10조 원)  
국고채 매입(11조 원), 회사채 · CP 매입규모 대출 등

## 금융안정 책무 수행



### 금융안정 상황 점검 강화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금융안정점검회의 개최



### 외환시장 안정

한미 통화스왑 체결(600억 달러)  
경쟁입찰을 통한 외화 대출(198.7억 달러) 등



### 비상대응체제 가동

긴급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등 개최

## 조사연구 및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다양한 조사연구 수행



### 대국민 비대면 소통 활성화

소셜미디어 활성화  
디지털 화폐 박물관 개설 등



BIS 이사국 활동 등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 적극 참여

화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연구 교류

# 1. 중기전략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설립 목적을 완수하고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중앙은행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 수행 목표와 우선순위 등을 부여한 3년 시계의 중기전략을 매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동 전략과 연계하여 해당 연도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 중기전략은 주요 업무 분야별로 9개의 전략목표와 35개의 전략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각 절에는 각 업무 분야별로 전략계획과 연계된 주요 사업 내용과 성과 등이 기술되어 있다.

표 III - 1. 2020년 중기전략 목표 및 계획

<b>1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b>	최적 통화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효과 분석 고도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 통화정책 운영체제 및 정책수단의 유효성 제고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b>2 금융안정을 위한 효과적 정책 수행</b>	금융안정상황 점검 및 정책대안 제시 기능 강화 금융안정 분석·연구 및 대외협력 강화 글로벌 금융규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b>3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도모</b>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도모 및 충격대응능력 제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모니터링 및 현안 분석 강화 금융안전망 확충
<b>4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b>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도모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 및 정책기능 강화
<b>5 경제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및 통계 확충</b>	경제분석 및 예측의 정도 제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 모색 새로운국제 통계기준의 안정적인 이행과 정착 경제전망 및 분석에 유용한 통계의 개발 및 확충 대국민 통계 서비스 제고 대내외 연구교류 강화
<b>6 외화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b>	외화자산의 안정적 운용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 투자전략 도모 외화자산 운용역량 강화
<b>7 화폐의 원활한 공급 및 신뢰 제고</b>	화폐수급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화폐 공급 및 관리 체계 구축 위·변조방지장치 조사연구 및 위폐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화폐·발권제도 및 화폐수요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b>8 대국민소통및국제협력강화</b>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경제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국제회의체,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의 정책협력·교류 강화
<b>9 조직 및 인력의 합리적 운영</b>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리스크 관리 내실화 및 위기대응역량 강화 직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제고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력운용 체계 강화 보수·복지 제도의 합리적 정비 근무인프라의 개선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유의 활성화 IT서비스 확충 및 고도화

자료: 한국은행

## 2. 통화신용정책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동 체계 하에서도 정책결정은 물가상황 외에 경제성장,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여수신제도,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등 금리 이외 정책수단도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2020년 중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출 지원제도와 시장안정 조치를 도입하였다.

### 가. 물가안정목표

한국은행은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로 설정하고 있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에는 목표수준을 종전(2016~18년)과 동일하게 2%로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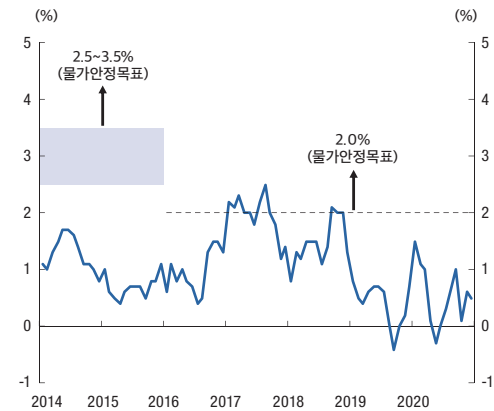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2020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낮은 오름세를 보여 2019년에 이어 물가안정목

표를 상당폭 하회하였다.

한국은행은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연 4회 발간, 국회 요구 시 총재의 국회 출석 및 답변 등을 통해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상황 전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다.

한편 2020년에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sup>37)</sup>하였으며, 그 결과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을 다음 점검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III-1. 물가안정목표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나.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2020년 중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확대하였다.<sup>38)</sup>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37)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2018년 12월) 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2년 주기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3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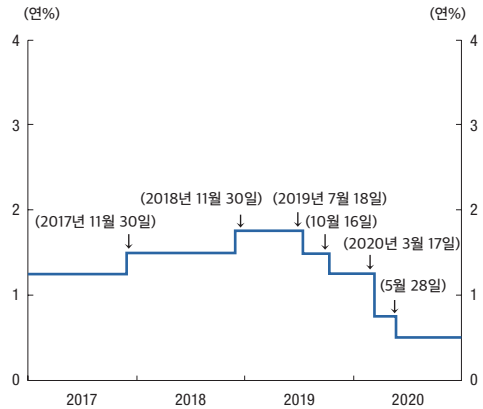
확산에 따른 급격한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0.75% 포인트 인하하여 저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였다.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가 국내외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3월에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인하하였다. 정책효과 면에서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등을 고려할 때 정례회의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임시회의를 통해 즉각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어 5월에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 인하하였다.

하반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른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가운데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 및 그간 취해진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의 파급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으로 대체로 원활히 파급되었으며 금융상황 개선을 통해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악화 간 부정적 피드백을 방지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으로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득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에서도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풀림이 심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다.

그림 III- 2.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 다. 여수신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등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수신업무를 수행한다. 2020년 중 운용한 여수신업무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으며, 수신업무로는 당좌예금, 자금조정예금 및 통화안정계정예치금 등이 있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원화대출금은 2020년 말 34조 2,723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8조 7,039억 원 증가하였다.

표 III- 2. 한국은행 원화대출금<sup>1)</sup> (기말 기준)

	잔액		증감액
	2019	2020	
금융중개지원대출	155,684	325,123	169,439
회사채·CP 매입기구 (SPV <sup>2)</sup> )에 대한 대출	-	17,600	17,600
합계	155,684	342,723	187,039

주: 1) 대정부대출금 제외

2)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

자료: 한국은행

예수금은 2020년 말 156조 5,959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3조 503억 원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원화예수금이 12조 7,942억 원 증가하고 외화예수금이 10조 2,561억 원 증가하였다.

표 III - 3. 한국은행 예수금 (기말 기준)

	잔액		증감액
	2019	2020	
원화예수금	742,548	870,490	127,942
금융기관	697,229	833,391	136,162
비거주자 <sup>1)</sup>	45,319	37,099	-8,220
외화예수금	592,908	695,469	102,561
합계	1,335,456	1,565,959	230,503

주: 1) IMF 등 외국기관의 원화예금  
자료: 한국은행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강화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2020년 중세 차례에 걸쳐 기존 25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18조 원 증액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월 9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5조 원 증액하여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 한도를 활용하여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1조 원 증액하였다. 3월 19일부터

는 피해범위 확산에 대응하여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sup>39)</sup>하는 한편 자영업자 및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sup>40)</sup>하였다. 이후에도 피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5월 18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5조 원 추가 증액하였다.

10월 5일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 원을 신규 지원<sup>41)</sup>하는 한편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운용 한도를 10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3조 원 증액하고 운용기한을 6개월 연장<sup>42)</sup>하였다. 아울러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설비투자 지원<sup>43)</sup> 규모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2조 원 확대하고 운용기한을 1년 연장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유인 제고,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 개선 등을 위해 3월 17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하였다.

한도 증액을 반영한 2020년 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43.0조 원이며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2.5조 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3.0조 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5.5조 원,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5.9조 원, 한도유보분 16.1조 원이다.

39) 종전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여행업, 여가업 및 운수업에서 서비스업 전체(일부 사행성 업종 등 제외)로 확대하였다.

40) 은행의 자영업자 및 저신용(6~10등급)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대한 한국은행 지원 비율을 50%에서 75~100%로 상향하였다.

41)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 2021년 3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의 100%를 지원한다.

42) 이에 따라 운용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이 종전 2020년 9월 말에서 2021년 3월 말까지로 변경되었다.

43) 2019년 10월 1일부터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3조 원 규모로 1년 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III- 4.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조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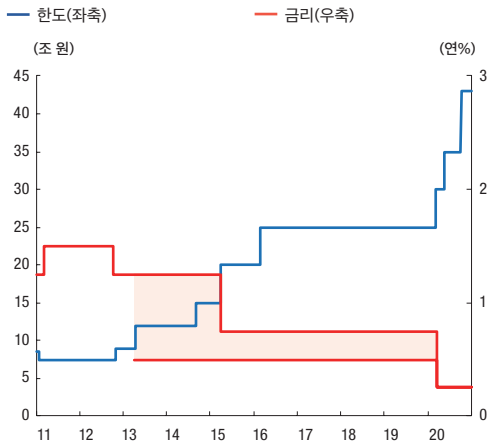
(조 원, 연%)

프로그램	한도		금리 <sup>1)</sup>	
	조정전	조정후		
무역금융지원	2.5	2.5	0.25	
신성장·일자리지원	10.0	13.0	0.25	
중소기업대출안정화 <sup>2)</sup>	6.5	5.5	0.25	
지방중소기업지원	5.9	5.9	0.25	
한도 유보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	13.0	0.25
	소상공인 지원	-	3.0	0.25
	기타	0.1	0.1	0.25
합 계	25.0	43.0	-	

주: 1) 2020년 말 기준

2) 기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기취급 잔액 등을 포함하여 지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 3.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 특별대출 등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 도모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및 기업 등의 자금조달 애로에 대응하여 대출 적격담보증권을 확대하고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설립하고 동 SPV에 대출을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 제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sup>44)</sup>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표 III- 5.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대출 적격담보증권	비고
기존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추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3개 특수은행채 <sup>1)</sup> 일반 은행채(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 채권 포함), 9개 공공기관 <sup>2)</sup> 발행채권	- 2021년 3월 31일까지 유효

주: 1)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자료: 한국은행

아울러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sup>45)</sup>하여 5월 4일부터 시행<sup>46)</sup>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기업의 신용증권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과 협력하여 7월 14일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설립<sup>47)</sup>하고 7월 23일 SPV에 1.78조 원 규모

44) 단,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은 4월 14일부터 적격담보증권에 추가되었다.

45) 대출금리는 통화안정증권 182일물 금리에 85bp를 가산한 금리이며 대출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의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 대출한도는 10조 원이다.

46) 동 제도의 운용기한은 종전 2020년 8월 3일에서 3개월 단위로 2차례 연장(2020년 11월 3일 → 2021년 2월 3일)되었다.

47) 한국은행의 선순위대출 8조 원, 산업은행(정부)의 출자 1조 원, 산업은행 후순위 대출 1조 원을 통해 10조 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필요시 최대 20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로 대출을 실시하였다. SPV는 한국은행 대출금과 산업은행의 출자 및 후순위 대출 1.22조 원 등 총 3조 원 규모<sup>48)</sup>로 대출 재원을 조성하여 7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채·CP를 매입하였으며 2020년 말 현재 매입 규모는 2.5조 원 수준이다.

표 III - 6. SPV의 신용등급별 회사채·CP 매입 현황<sup>1)2)</sup>

(억 원, %)

신용등급 <sup>3)</sup>	금액	비중
AA(A1)	5,400	21.9
A(A2)	13,551	54.8
BBB(A3)	5,760	23.3
합계	24,711	100.0

주: 1) 2020년 12월 말 기준

2) 액면금액 기준

3) ( )내는 CP 신용등급

자료: 한국은행

## 라. 공개시장운영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콜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 다양한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액공급방식 RP매입,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유동성 공급경로를 확충하였다.

### 신축적인 유동성조절 및 제도개선

2020년 중 유동성조절 필요규모(평잔 기준)

는 180조 6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6조 6천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화폐발행 증가 등으로 지준공급이 감소한 데다 수시입출식 예금이 증가하면서 지준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한국은행은 이에 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RP매매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는 지준 수급 변동 등 단기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그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절하였다.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평잔 기준) 및 RP(순)매각규모(RP 매각에서 매입을 차감한 순액, 평잔 기준)는 유동성조절 필요규모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각각 5조 원, 2조 5천억 원 축소되었다. RP(순)매각규모 감소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3월 중에 실시한 비정례 RP매입과 4~7월 중 실시된 전액공급방식 RP매입 등으로 RP매입이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한편 통화안정계정 예치규모(평잔 기준)는 9천억 원 증가하였다.

표 III - 7.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평잔 기준)

(조 원)

	2019	2020				
	연간	I	II	III	IV	
유동성조절필요규모	187.2	180.6	180.0	179.6	181.9	180.8
통화안정증권	168.1	163.1	161.6	164.0	166.4	160.3
RP(순)매각잔액	10.5	8.0	11.6	2.2	6.2	11.7
RP매각	10.6	13.0	12.1	14.5	13.1	12.2
RP매입	0.1	5.0	0.5	12.3	6.8	0.5
통화안정계정	8.7	9.5	6.7	13.4	9.3	8.8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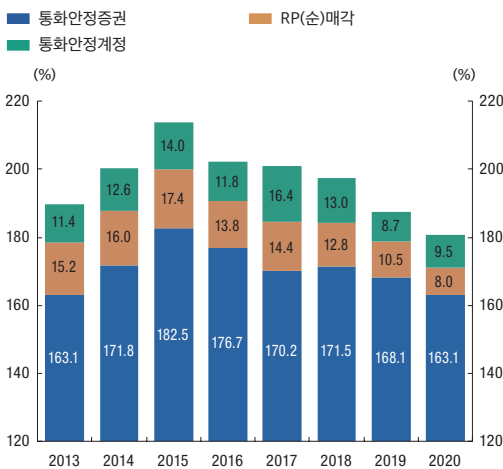
48) SPV의 재원 조달은 4차례에 걸쳐 capital call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1차로 3조 원이 조달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개시장운영 수단에서 통화안정증권과 통화안정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중 89.8%, 4.6%에서 2020년 중 90.3%, 5.3%로 각각 확대된 반면 RP(순)매각 비중은 2019년 중 5.6%에서 2020년 중 4.4%로 축소되었다.

한편 10월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을 계기로 공개시장운영 입찰 참가기관들에게 입찰마감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입찰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아울러 12월에는 유동성조절 필요규모의 추세적 감소 전망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공개시장운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분기별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의결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였다.

그림 III- 4.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평잔 기준)



주: 1)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상대매출 3조 4,763억 원(2014년 발행, 2015년 상환)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상대매출 3조 4,487억 원(2015년 발행, 2016년 상환) 제외

자료: 한국은행

##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도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2020년 3월 중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비은행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확대 공급할 필요가 커졌다. 특히 한국은행은 3월 하순에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의 자금수요 급증, 분기말 자금수급 불일치 등으로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비정례 RP매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총 3조 5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sup>49)</sup>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 및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전액공급방식의 정례 RP매입」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매주 1회 91일물 RP매입 입찰을 통해 고정금리로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 전액을 한도 제약 없이 지원하는 제도인데 4월부터 7월까지<sup>50)</sup> 총 19조 4천 3백억 원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 확대조치로 인해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사정이 개선되고 장단기 시장금리도 안정세를 회복하였다.

## 유동성 공급경로 확충

한국은행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확대하였다.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RP매매 대상기관이 아닌 증권사 중 7개 통화안정증권매매 대상기

49) 주로 증권사 및 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3월 19일 1조 원, 3월 24일 2.5조 원의 RP매입을 실시하였다.

50) 최초 도입시에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전액공급방식 RP매입의 만기도래분이 일시 상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료시점을 7월 말까지 연장하였다.

관 및 4개 국고채 전문딜러를 대상기관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RP매매 대상기관은 기존의 22개에서 33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되었다<sup>51)</sup>.

또한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확충할 목적으로 4월에는 1년 간 한시적으로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으로 한정되어 있던 RP매매 대상증권에 3개 특수은행채<sup>52)</sup>, 일반은행채<sup>53)</sup> 및 9개 공공기관<sup>54)</sup> 발행 특수채를 추가하였다. 또한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는 기존의 국채, 정부보증채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및 3개 특수은행채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조치는 전액공급방식 RP매입 등을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금융불안 재발 시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채 등 무위험 채권 외에 은행채 등 신용증권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유동성 공급 경로를 확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국고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RP매각 대상증권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였다. 3월부터 8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6조 원 규모의 단

순매입을 실시한 데 이어 9월에는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지급 관련 국고채 발행 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 및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9월부터 연말까지 총 5조 원 내외의 국고채를 유통시장을 통해 매입할 계획임을 시장에 사전 공표하는 것이었다. 동 계획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5조 원 규모로 국고채를 단순매입함으로써 2020년 중 국고채 누적 매입 규모는 총 11조 원에 달하였다.

## 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통화정책 운영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2019년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례적(연 2회)으로 점검하기로 함에 따라, 6월과 12월 두 차례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물가 상황, 전망 및 리스크 요인, 향후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매 분기 발행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의 코로나19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영상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안정 책무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제고하는 방향<sup>55)</sup>으로 최근의 정책수행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통화신용

51) 해당조치는 매년 8월 공개시장대상기관이 신규로 선정되기 때문에 일단 7월 말까지 유효하였다. 7월 말 발표된 신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유효)에서도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기관은 전년(2019년 7월 말 선정 기준)의 22개 기관에서 1개 국내은행 및 4개 비은행금융기관이 추가되어 총 27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52)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53) 농업금융채권 및 수산금융채권 포함

54)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투자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55)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정책수행을 반영하여 금융안정 관련 문구를 수정하였다.

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수정하였다.

정책 및 업무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대외 커뮤니케이션 패널을 확충하였다. 2019년 50명 수준에 머물던 패널 수를 2020년 11월까지 200명으로 점차 확대하였으며 기존의 학계, 연구소, 금융기관 전문가에 기업 및 산업계, 언론계 인사를 추가 하는 등 패널 구성을 다각화하였다. 확충된 대외커뮤니케이션 패널을 통해 통화정책방향 결정, 주요 보고서, 정책 및 업무 운영 등에 대한 외부의견을 시의성 있게 수렴하여 정책 수립과 업무개선에 반영하였다.

금융통화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던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나 지역기업 간담회 등의 활동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되었지만, 대학생, 기업체 임직원, 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 참고 III-1.

### 한국은행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

안 및 실물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기존 금리를 인하하고 피해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단기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실시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분석하고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글로벌 협력 및 대외소통을 강화하였다.

표 III-8. 한국은행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조치

(2020년 말 기준)

구분	대응조치	주요 내용	
통화 신용 정책	기준금리인하	■ 1.25% → 0.50%(0.75%p)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등	■ 한도 확대 : 25조 원 → 43조 원(+18조 원) ■ 대출금리 인하 : 0.5%~0.75% → 0.25%	
	유동성 공급	전액공급방식 RP 매입	■ 공급실적 총 19.43조 원(7월 말 종료)
		비은행 대상 RP 매입	■ 공급실적 : 총 3.5조 원(3월 19일 1.0조원, 3월 24일 2.5조 원)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하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및 증권 확대	■ RP매매 대상기관 확대(7월 말 종료) ■ 단순매매 및 RP매매 대상 증권 확대
	국채 및 회사채·CP 시장 안정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도입	■ 총 한도 : 10조 원(운용기한 : 2021년 2월 3일) ■ 대출 담보 : 일반기업 발행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AA-이상) 회사채
		회사채·CP 매입기구를 통한 신용시장 지원	■ 규모 : 10조 원(시장상황에 따라 20조 원까지 확대) ■ SPV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출금액 : 1.78 조원
		국고채 단순매입	■ 매입실적 : 총 11조 원(3월·4월·7월·8월 각 1.5조 원, 9월 2.0조 원, 10월·11월 각 1.5조원)
	거시건전성 분석 평가	■ 가계·기업의 여신 및 유동성 상황 점검 ■ 코로나19 금융지원의 효과 및 리스크 점검	
금융 안정	외환시장 안정	통화스왑 체결 및 갱신	■ 미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만기 : 2021년 9월말) ■ 중국(약 590억 달러) 및 호주(81억 달러) 중앙은행 등과의 통화스왑 확대 및 연장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 총 198.72억 달러 공급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 국내은행(40% → 50%) 및 외은지점(200% → 250%)
		외환건전성 부담금 경감	■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에 대해 3개월(2020년 4~6월) 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기간 제외 등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 금융회사의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 달러 자금을 공급 ■ 대상 채권 : 미 국채(필요시 미 정부기관채 등으로 확대)	
발권	화폐 수요 변화 대응	■ 오만원권 발주량 확대	
	화폐를 통한 감염 차단	■ 최소 2주간 금고내 보관 후 정사	
지급 결제	금융기관 담보여력 확충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용 인하(70% → 50%)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확대	
외환 및 국제협력	외화자산 유동성 및 안정성 제고	■ 외화자산의 안정성 및 유동성 점검 ■ 외화자산 운용의 연속성 확보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 적극 참여	■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14회), IMF·세계은행 회의(2회) 참여 ■ 정부와 공동으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정례 4회 + 특별 3회),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1회) 등 참여	
조사 통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분석	■ 세계교역, 생산, 소비, 수출, 고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을 분석	
	화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연구 교류 지속	■ Annual Meeting of the CERA, FMA Annual Meeting 참여, 한·일 공동 리서치 워크숍 개최 등	
대외 커뮤니케 이션	비대면 소통 확대	■ 홈페이지 코로나19 정책대응 게시판 신설, 소셜미디어 활성화, 기자간담회 실시간 생중계 등 ■ 디지털 화폐박물관 개설	

자료: 한국은행

### 3. 금융안정

#### 가. 거시건전성 분석·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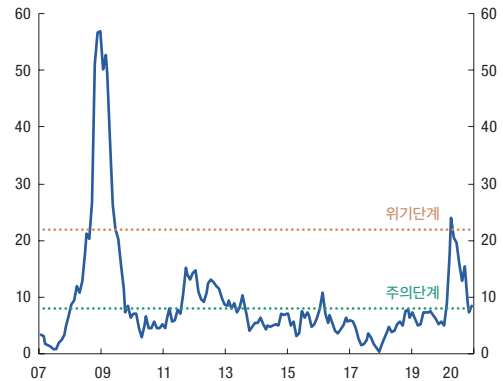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대응하여 가계 및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재무건전성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동검사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과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 금융안정상황 점검<sup>56)</sup>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3월 들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신용경계감이 확산되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정부 및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빠르게 안정을 회복하였다. 다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계 및 기업 모두 차입을 크게 늘리면서 민간신용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경기회복 지연 및 실적 부진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다소 저하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sup>57)</sup>(FSI, Financial

Stability Index)는 4월 위기 단계에 일시 진입하였다가 하락세를 지속하여 2020년 12월 말 현재 주의단계 임계치(8.0)를 소폭 상회하고 있다.

그림 III- 5. 금융안정지수(F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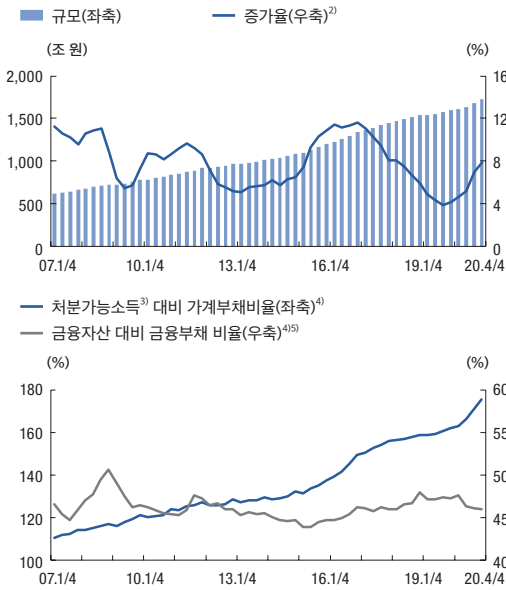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2020년말 215.5%(추정치)로 전년동기대비 18.4% 포인트 상승하는 등 큰 폭 증가하였다. 민간신용의 증가율이 가계 및 기업부문 모두 크게 확대된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명목GDP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되었다. 가계신용은 주택거래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경기부진 지속 등으로 소득증가율이 정체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도 증대되었다. 다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소폭 하락하는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56)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상황을 매분기 점검하는 금융안정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있다. 또한 금융안정회의의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당일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6월 및 12월 회의에서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심의·의결한 당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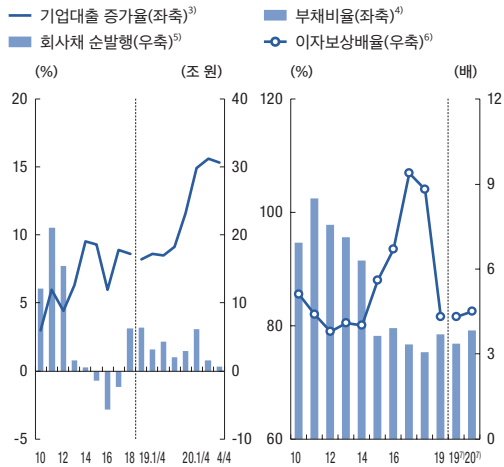
57)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6개 부문(은행, 금융시장, 대외, 실물경제, 가계, 기업)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로, 금융안정 상황을 정상, 주의, 위기 단계로 구분하며 주의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를, 위기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낸다. 주의 및 위기 단계 임계치는 'noise-to-signal ratio' 방식에 따라 각각 8과 22로 설정하였다.

그림 III- 6. 가계신용<sup>1)</sup>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분기 자료는 추정치  
 4) 20년 4/4분기는 추정치  
 5) 자금순환통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 7. 기업신용<sup>1)</sup> 및 재무건전성<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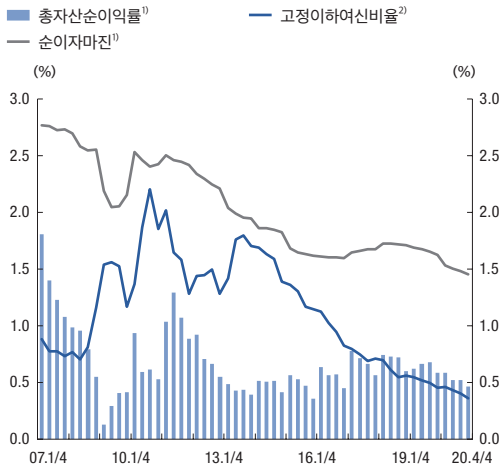


주: 1) 예금은행(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기업(금융 및 보험업 제외)대출 기준  
 2) 사업보고서 공시 상장기업, 일부 비상장기업 등 총 2,248개 기업 대상  
 3) 전년동기대비 기준  
 4) 부채/자기자본, 기말기준  
 5) 분기 중 기준(19년 이후)  
 6) 영업이익/이자비용  
 7) 각년도 3/4분기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KIS-Value

기업신용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지원 조치, 기업들의 자금확보 노력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 등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저하되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의 경영상황은 자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수익성도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소폭 저하되었으나, 자산건전성이 개선되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자산 성장세가 지속된 가운데 대부분의 업권에서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경영건전성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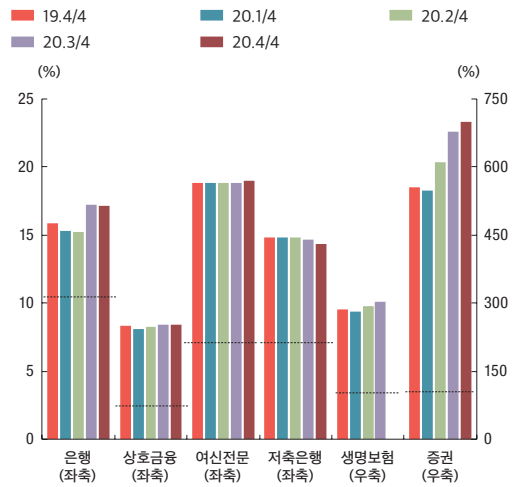
그림 III- 8.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2) 기말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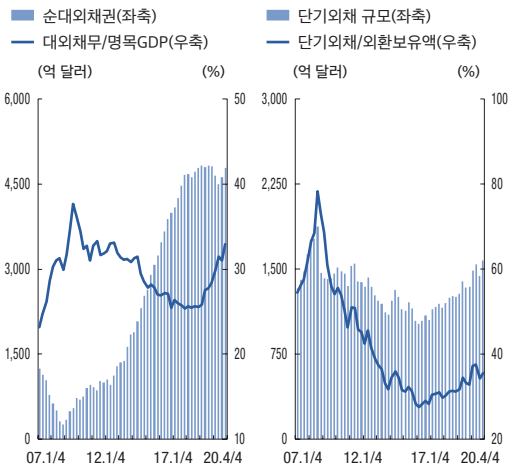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일반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바젤Ⅲ 개편안 조기 도입 등으로 상승한 가운데 유동성 대응능력도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권에서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금융불균형이 조정되는 예외적인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금융업권별 평균 자본비율이 모든 업권에서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충격에 취약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의 부실이 타 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외지급능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시 저하되었으나 외환보유액이 큰 폭 증가하면서 안정세를 보였다.

그림 III- 9. 금융기관<sup>1)</sup> 자본비율<sup>2)3)</sup>



주: 1) 은행은 일반은행 기준, 20년 4/4분기는 잠정치  
2) 은행 총자본비율(10.5%, D-SIB은 11.5%), 상호금융조합 순자본비율(감독기준 2%, 새마을금고는 4%, 농협은 5%), 여신전문금융회사 조정자기자본비율(7%, 신용카드회사는 8%), 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7%,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은 8%),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100%), 증권회사 순자본비율(100%)  
3) 점선은 감독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II- 10.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sup>1)</sup> 및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sup>1)</sup>



주: 1) 분기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앞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세 약화 우려 등 국내외 불안요인에 유의하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간의 레버리지가 높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차별적인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가계 및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과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변화에 따른 자산가격의 조정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증대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 공동검사 수행 및 국내외 금융안정 현안 논의 참여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스템 내 누적된 잠재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가계 및 기업 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급증한 가계 및 기업 여신에 대한 은행의 리스크관리 실태와 경영건전성을 점검하였으며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에 의한 가계부채 누증 위험, 부동산 관련 대출부실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겪은 가계, 기업의 유동성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시된 대규모 금융지원의 효과와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였다. 한편 한국신용정보원과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전 금융권 기업대출 미시데이터 DB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상시감시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III-9.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회)

	2016	2017	2018	2019	2020 <sup>1)</sup>
부문검사	3	4	3	4	-
개별은행 리스크 검사	3	2	2	2	2

주: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1~9월중 공동검사를 중단

자료: 한국은행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은행감독 실무그룹 회원기관으로서 SEACEN(South East Asian Central Bank) 회원국 은행감독국장 회의 등에 참여하여 역내 금융안정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하는 감독자협의회<sup>58)</sup>(Supervisory College)에 참석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은행의 글로벌 경영전략 변화 및 성과,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논의하고 이를 국내은행 공동검사업무 수행에 활용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관계기관 간 「거시경제금융회의<sup>59)</sup>」, 「가계부채관리협의체」 등에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등이 국내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정보공유 및 정책협력을 위해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먼저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회원기관으로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모니터링하고 정책대응 상황을 공유하였다. 또한 핀테크, 암호자산,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금융

58) 글로벌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본점 소재국과 진출국 금융당국자들이 참가하는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이다.

59)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2012년 7월에 신설되어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다.



안정 리스크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하였다. 이후 관련 금융리스크와 관련하여서는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 간 논의체인 녹색금융네트워크(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sup>60)</sup> 산하 연구그룹에도 참여하였다.

이 밖에도 FSB 산하 아시아 지역자문그룹과 동남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 은행감독실 무그룹의 회원기관으로서 역내 금융안정 현안을 논의하였다.

## 나. 외환시장 안정조치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 및 기업 등에 외화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는 한편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 공급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중 국제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 확대로 미 달러화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미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스왑자금을 활용하여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총 6회에 걸쳐 은행을 대상으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98.72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공급하였다. 3월 하순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달러화 유동성 사정이 개선된 데다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이미

공급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자금은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전액 회수되었다.

표 III - 10.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공급 및 회수 현황

(억 달러)

회차	공급	회수
3.31일(1회차)	79.20 (84일물)	79.20 (6.25일)
	8.00 (7일물)	8.00 (4.9일)
4.7일(2회차)	41.40 (84일물)	41.40 (7.2일)
	2.75 (8일물)	2.75 (4.17일)
4.14일(3회차)	20.15 (83일물)	20.15 (7.9일)
	0.10 (6일물)	0.10 (4.23일)
4.21일(4회차)	21.19 (84일물)	21.19 (7.16일)
4.27일(5회차)	12.64 (85일물)	12.64 (7.23일)
5.6일(6회차)	13.29 (83일물)	13.29 (7.30일)
합계	198.72	198.72

자료: 한국은행

###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와 함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3월 중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상향 조정<sup>61)</sup>하고 외화LCR<sup>62)</sup>을 한시적으로 10% 포인트 하향 조정(80% → 70%)함으로써 은행 등 금융기관이 외화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 부담도 한시적으로 경감<sup>63)</sup>하였다.

60)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 관행 공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설립된 자발적 논의체로서 한국은행은 2019년 11월 가입하였으며 2020년 12월 말 현재 83개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가 참여 중이다.

61) 국내은행은 40%에서 5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62) 2017년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은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이며, 향후 30일 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63) 2020년 2/4분기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하였으며, 2020년 중 정수 예정인 부담금(2019년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방법을 조정하였다. 즉 2회에 걸쳐 5:5의 비율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분할납부 비율을 1:9로 조정하고 2회차 부담금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였다.

##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도입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와 함께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를 2020년 9월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 국채를 일정 기간 동안 환매조건부로 매입함으로써 미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은행의 외화자금 중개 기능 저하 시에 시행되어 자금수급 불안이 외환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 중층적 금융안전망 확충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중국, 호주 등과 통화스왑 연장계약 체결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미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sup>64)</sup>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상황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10월에는 중국인민

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을 연장하며 규모와 기간을 모두 확대<sup>65)</sup>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시기에도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장치를 강화하고 만기 관련 불확실성을 축소하였다. 아울러 2월에는 호주중앙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연장하며 스왑 규모를 20%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2월) 및 인도네시아(3월)와의 통화스왑계약을 순차적으로 만기 연장하는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스왑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였다.

###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

한국은행은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ASEAN+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의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정 협정문이 6월 23일 발효되는 데 기여하였다. 협정문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금지원 기간 확대, 신용공여조건 체계 구축, IMF와의 협력 메커니즘 제고 등이다. 또한 CMIM의 실행력(operational readiness) 제고를 위한 모의훈련<sup>66)</sup>에 참여하여 역내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였다.

64) 계약 기간은 6개월이며 이후 두 차례(7월, 12월)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9월까지로 만기를 연장하였다.

65) 계약 규모는 기존 3,600억 위안/64조 원에서 4,000억 위안/70조 원으로, 계약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66) CMIM 자금인출 모의훈련은 2020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금번 제11차 모의훈련은 위기예방 목적(precautionary line)의 실거래 테스트로서 2개국 중앙은행이 통화스왑 자금을 요청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ASEAN+3 회원국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실시되었다.

표 III- 11.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구분	체결 국가	규모 (미 달러 <sup>1)</sup> 기준)	최근 체결· 연장일	만 기
자국 통화 스왑	미국	600억 달러	2020년 12월	2021년 9월
	캐나다	사전한도 없음	2017년 11월	없음
	스위스	100억 프랑/11.2조 원 (약 106억 달러 상당)	2018년 2월	2021년 3월
	중국	4,000억 위안/70조 원 (약 590억 달러 상당)	2020년 10월	2025년 10월
	인도네시아	115조 루피아/10.7조 원 (약 100억 달러 상당)	2020년 3월	2023년 3월
	호주	120억 호주달러/9.6조 원 (약 81억 달러 상당)	2020년 2월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150억 링깃/5조 원 (약 47억 달러 상당)	2020년 2월	2023년 2월
	UAE	200억 디르함/6.1조 원 (약 54억 달러 상당)	2019년 4월	2022년 4월
미달 러화 스왑	CMIM	384억 달러 <sup>2)</sup>	2014년 7월	—

주: 1) 최초 또는 규모 확대 체결 시 환율 기준

2) CMIM 총 재원은 2,400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수혜 및 분담 규모는 각각 384억 달러(16%)

자료: 한국은행

## 참고 III-2.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유동성 공급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외환시장은 3월 들어 긴장이 높아졌다. 특히 3월 10일 이후에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인 미국 국채시장에서 교란이 발생하는 등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스왑레이트가 급락하는 등 혼란이 초래되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한 주요국 중앙은행들 간의 정책공조의 일환으로 2020년 3월 미 연준<sup>67)</sup>과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통화스왑 규모는 미 연준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체결한 계약의 두 배 수준인 600억 달러로 큰 폭 확대되었다. 통화스왑계약 체결 발표만으로도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sup>68)</sup>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하였다.

곧이어 한국은행은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을 실시하여 국내 외화자금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4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98.72억 달러를 공급하였으며 평균 낙찰금리(84일물)는 1회차 0.9080%에서 6회차 0.2941%를 기록하는 등 회차를 거듭함에 따

라 크게 하락하였다. 통화스왑 자금 공급 후에는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이 개선<sup>69)</sup>되는 등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되었다.

하반기 들어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글로벌 달러화시장과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한국은행과 미 연준은 달러 자금시장 경색 재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화스왑계약 만기를 두 차례(7월, 12월) 6개월 연장<sup>70)</sup>하였다.

표 III- 12.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세부 내역

(억 달러, %)

입찰일	대상거래	입찰금액	낙찰금액	낙찰금리 <sup>1)</sup>
3.31	84일물	100	79.20	0.9080
	7일물	20	8.00	0.5173
4. 7	84일물	70	41.40	0.5323
	8일물	15	2.75	0.4819
4.14	83일물	35	20.15	0.3567
	6일물	5	0.10	0.3300
4.21	84일물	35	21.19	0.3386
	6일물	5	0.00	-
4.27	85일물	40	12.64	0.3348
5. 6	83일물	40	13.29	0.2941
합계	-	365	198.72	-

주: 1) 가중평균 낙찰금리

자료: 한국은행

67) 2020년 3월 19일 미 연준은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 경색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을 포함한 9개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발표하였다. 계약 규모는 각각 600억 달러(한국, 호주, 싱가포르, 스웨덴, 브라질, 멕시코) 및 300억 달러(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이며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68)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발표한 다음날인 3월 20일 코스피는 7.4% 상승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3.1% 하락하였다.

69) 외환스왑레이트(3개월물)는 3월 -141bp에서 5월 -32bp로 109bp 상승하였다.

70) 통화스왑 규모 및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며 계약 기간만 각각 2021년 3월 31일,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다.

## 4. 발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화(은행권 및 주화) 발행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국민들의 높은 화폐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화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기념 「한국의 주화」 세트 및 4종의 국립공원 기념주화를 국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발행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위조지폐 유통방지 홍보,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선정·포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 깨끗한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손상된 화폐를 꾸준히 회수하여 폐기하였으며 금융기관, 한국조폐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원활히 협력하여 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였다.

### 가. 화폐 발행

#### 화폐수요에 대응

2020년 중 한국은행은 36조 4,995억 원의 화폐를 발행하고 14조 6,415억 원의 화폐를 환수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화폐 발행잔액은 2019년 말보다 큰 폭 증가(17.4%)한 147조 5,569억 원에 달하였다. 화폐 종류별로는 오만원권과 만원권의 발행잔액이 2019년 말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오천원권과 주화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III - 13. 화폐발행·환수 및 발행잔액<sup>1)</sup>

(억 원)

	2020			2020년 말 발행 잔액
	발행 (A)	환수 (B)	순발행 (A-B)	
은행권 <sup>2)</sup>	364,725	145,932	218,793	1,450,610 (17.8)
오만원권	252,155	60,998	191,157	1,245,101 (18.1)
만원권	107,345	79,815	27,530	174,878 (18.7)
오천원권	2,302	2,323	-20	14,140 (-0.1)
천원권	2,923	2,797	126	16,311 (0.8)
주 화 <sup>2)</sup>	270	483	-213	24,958 (-0.8)
합 계	364,995	146,415	218,580	1,475,569 (17.4)

주: 1) ( ) 내는 2019년 말 대비 증감률(%)

2) 오백원권 이하 은행권, 오원화 이하 주화, 기념화폐 포함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한 화폐는 7억 7,041만 장으로 2019년 말 대비 7.0% 증가하였다. 은행권은 오만원권을 중심으로 43.2% 증가한 반면, 주화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49.9% 감소하였다. 이들 제조화폐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조 4,676억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192.5%에 달하였다.

표 III - 14. 화폐 제조규모<sup>1)</sup>

	장 수(100만 장)		금액(억 원)	
	2019	2020	2019	2020
은행권 <sup>2)</sup>	440.0	630.0	59,600	174,600
	(-32.3)	(43.2)	(-58.9)	(193.0)
주 화 <sup>2)</sup>	280.3	140.4	112	76
	(91.7)	(-49.9)	(-66.9)	(-32.1)
합 계	720.3	770.4	59,712	174,676
	(-9.5)	(7.0)	(-58.9)	(192.5)

주: 1)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2) 기념화폐 제외

자료: 한국은행

##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한국의 주화」 세트 및 국립공원 기념주화 4종 발행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사적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의 주화」 세트를 발행하였다. 동 주화세트는 도안, 소재, 지름, 무게가 기존 현용주화와 동일하나 특수한 가공처리 기법을 통해 도안의 선명도를 크게 향상시킨 고품질 주화 세트로서 한국은행 창립 이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발행되었다.

그림 Ⅲ- 11.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한국의 주화」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4종(월악산, 계룡산, 한라산, 태안해안)을 9월 24일에 발행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는 2023년까지 시리즈로 발행될 예정이다.

그림 Ⅲ- 12. 2020년 발행 기념주화

화종	도안	소재·규격
한국의 국립공원 (월악산)	(앞면) 월악산 국립공원 - 월악산 (뒷면) Korean National Parks - Wollak Mountain	·은 99.9% ·지름 40mm ·무게 31.1g
한국의 국립공원 (계룡산)	(앞면) 계룡산 국립공원 - 계룡산 (뒷면) Korean National Parks - Gyeongsan Mountain	
한국의 국립공원 (한라산)	(앞면) 한라산 국립공원 - 한라산 (뒷면) Korean National Parks - Hallasan Mountain	
한국의 국립공원 (태안해안)	(앞면) 태안해안 국립공원 - 태안해안 (뒷면) Korean National Parks - Taean Coast	

자료: 한국은행

## 나. 화폐 유통

### 위조지폐 유통방지 등 홍보 강화

한국은행은 위조지폐의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동영상 매체를 활용한 광고, 대중교통(버스 및 KTX TV, 지하철 등)을 이용한 광고, UCC 공모전,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화폐사랑 UCC 공모전」(7회차)도 계속 개최하여 86편의 응모작 가운데 8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이 밖에 화폐위조범 검거 등에 기여한 2개 경찰서에 대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포상을 실시하였다.

2020년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272장으로 2019년(292장)보다 20장 감소하여 관련 통계를 공표(1998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상거래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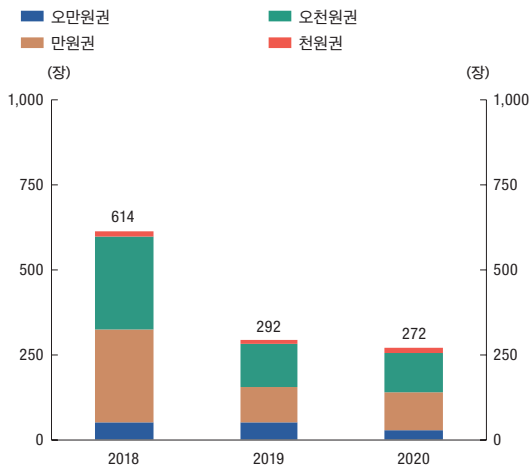
적의 화폐 사용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기관 및 국민들의 위폐식별능력 향상 등을 위한 각종 홍보노력이 계속 강화되어 온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III- 13 화폐사랑 UCC 공모전 수상자 시상  
(2020년 11월 5일)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 14. 위조지폐 발견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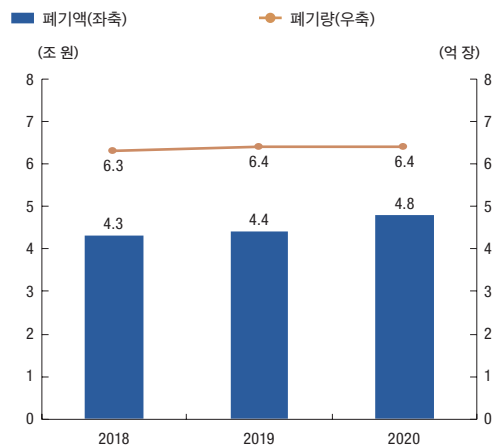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유통화폐 청결도 개선 노력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환수한 화폐 중 훼손, 오염 등으로 재발행하기 부적합한 화폐를 폐기하여 유통화폐의 청결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다. 2020년 중 폐기한 손상화폐는 4조 7,644억 원으로 장수 기준으로 6억 4,256만 장에 달하였다. 화폐 종류별로는 은행권이 4조 7,614억 원(6억 848만 장), 주화가 30억 2,599만 원(3,408만 개)이었다. 한편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화폐는 106억 9,461만 원으로 2019년(73억 9,745만 원) 대비 32억 9,716만 원 증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돈 깨끗이 쓰기」 동영상 배포 등 PC와 모바일,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화폐사용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였다.

그림 III- 15. 화폐 폐기규모



자료: 한국은행

##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한국은행은 상거래시 지급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홍보 활동을 2020년 처음으로 전개하였다. 최근 들어 일부 음식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현금 수취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등 금융·사회적 취약계층의 소비활동 배제나 금융소외와 같은 피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현금 없는 사회 진전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현금사용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 다. 대외 협력

한국은행은 관세청, 경찰청, 한국조폐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위조지폐의 발견 동향 및 특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계속하였다. 2020년 11월에는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국가정보원, 시중은행 등의 위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폐전문가그룹에 공식적으로 참가하여 대국민 위조지폐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위조지폐를 검찰로부터 인수하여 위조지폐의 제작 방법과 수준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그림 III-16.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포스터



자료: 한국은행



## 참고 III-3.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벌권 업무 수행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확대되면서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의 오만원권 수요가 큰 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오만원권 영업자금 부족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화폐 수요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오만원권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화폐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오만원권의 발주량을 늘리고 한국조폐공사로부터의 신권 납품시기를 조기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표 III-15. 오만원권 순발행액

(조 원)

	2016	2017	2018	2019	2020
발행액	22.8	25.6	25.0	26.7	25.2
환수액	11.4	14.8	16.9	16.1	6.1
순발행액	11.5	10.8	8.1	10.7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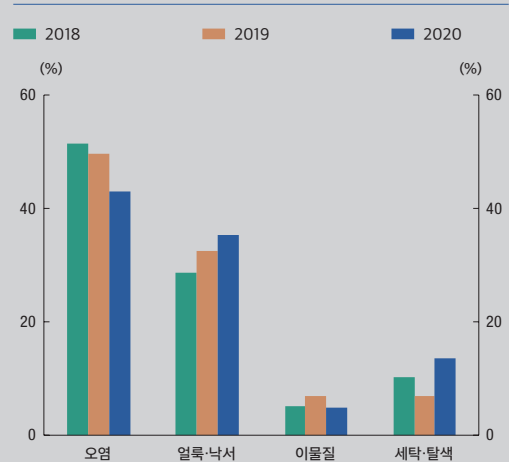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화폐 유통과정에서 화폐를 매개로 한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한 화폐의 경우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감안하여 최소 2주 간 금고 내에서 보관한 후 정사<sup>71)</sup>를 실시하였고 정사 처리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오염화폐의 폐기를 적극 유도하였다.

또한 화폐 교환 업무가 손상·오염 화폐의 신속한 대체는 물론 국민들의 생업 유지 등에 적지 않은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대국민 화폐 교환 서비스를 적극 수행하였다. 2020년 화폐 교환 창구를 통한 교환 횟수는 약 33만 건으로 2019년 대비 약 4만 건 감소하였으나, 세차장 등 국민들의 영업활동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량주화<sup>72)</sup>의 경우에는 3,600만 개를 교환하여 2019년(2,350만 개) 대비 교환 물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올바른 화폐사용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예로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일부 국민들이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으로 화폐 소독을 시도함에 따라 화재·탈색으로 인한 화폐 손상이 전년대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등 부적절한 화폐 취급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III-17 은행권 주요 손상요인



자료: 한국은행

71) 한국은행은 장수 및 액면확인, 위·변조 화폐의 추출, 사용 가능한 화폐와 손상된 화폐의 구분 등 유통화폐의 청결도 제고 및 위조 지폐 유통방지를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납한 화폐 및 화폐교환, 국고수납으로 환수된 화폐를 대상으로 정사를 실시한다.

72) 대량주화란 화종별로 500원화 2,000개, 100원화 2,500개, 50원화 2,500개 또는 10원화 5,000개 이상의 주화를 말한다.

## 5. 지급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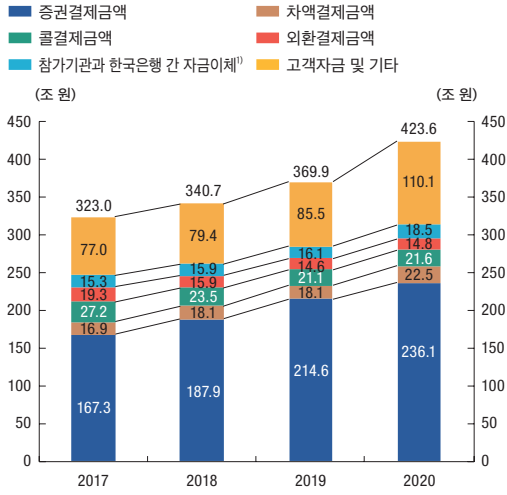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거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중에 일시적으로 결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sup>73)</sup> 및 개선하는 한편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 비율 인하 및 담보범위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 가. 한은금융망 운영

#### 원화자금 결제금액 증가세 지속

2020년 중 한은금융망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일평균 423.6조 원으로 2019년에 비해 14.5% 증가하였다. 결제자금 종류별로는 증권자금 결제금액이 기관간 RP 등을 중심으로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차액자금 결제금액은 인터넷뱅킹 등 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2019년에 비해 큰 폭 증가하였다. 콜자금 및 외환자금 결제금액은 2019년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그림 III- 18. 한은금융망 결제금액 (일평균)



주: 1) 국공채 등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자료: 한국은행

####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지연 및 교착이 한은금융망 전반의 결제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에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을 공급하였다. 2020년 일시결제부족자금 공급규모는 일평균 3조 4,862억 원으로 2019년보다 14.3%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일중당좌대출<sup>74)</sup> 일평균 지원금액은 6,0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6% 증가하였으며, 일중RP<sup>75)</sup> 일평균 지원금액은 2조 8,832억 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다.

73)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의미한다.

74) 은행들의 일시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당일 상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대출이다.

75)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참가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81조의2(일시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따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RP방식을 이용한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제도를 2012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표 III- 16.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규모 (일평균)

(10억 원, %)

	2018	2019	2020	증감률 <sup>2)</sup>
일중당좌대출 <sup>1)</sup>	328.5	432.1	603.0	+39.6
일중RP	2,147.9	2,618.1	2,883.2	+10.1
계	2,476.4	3,050.2	3,486.2	+14.3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2) 2019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

###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은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sup>76)</sup>에 관한 원칙<sup>77)</sup>(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sup>78)</sup>에 따라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20년 중에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요결제시스템인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및 2019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오픈뱅킹공동망과 관련하여 결제불이행 대비 대응체계, 참여기준 등의 제도 정비, 운영리스크 관리 등 청산·결제 단계의 안전

장치를 일부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부문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관련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2개 국내은행과 1개<sup>79)</sup>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국내은행은 일중 유동성 관리 등 지급결제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무지속계획상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목표복구시간을 지정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운영기관(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에 즉시 보고하는 절차를 IT 장애대응 내부지침 등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이체업무 수행 현황 및 결제유동성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본점 폐쇄 가능성 등에 대비한 업무지속계획의 수립·운영 현황을 살펴 보고 전산시스템 운영 등 운영리스크 관리 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76) 경제주체들의 일상적인 지급이나 금융상품 거래를 청산, 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CCP), 중앙예탁기관(CSD), 증권결제시스템 및 거래정보저장소(TR)로 구성된다.

7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 정비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으로 2012년 4월에 제정·발표한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이다.

78) CPMI-IOSCO는 PFMI를 보완하기 위해 「FMI 사이버복원력 지침(2016년 6월)», 「FMI 손실복구지침 (2017년 7월)», 「CCP 복원력 추가지침 (2017년 7월)」등 국제기준을 추가 제정하였다.

79) 2020년 중 한국은행은 연간 3회 정도 실시하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회 실시하는 대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이들 회사의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였다.

## 다. 지급결제제도 개선

###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한국은행은 2015년에 착수한 차세대 한은 금융망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 10월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한은금융망은 1994년 최초 가동 이후 오랜기간 동안 혼합형 결제, 서버접속방식, 증권대금동시결제, 일중 RP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시스템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국은행은 유동성절감 결제방식 개선, 결제계좌 정비 및 일중당좌대출 공급경로 확대, 증권대금동시결제 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으로 참가기관의 자금이체 편의성이 제고되고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다양화, 코로나19 등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소액결제시스템 및 한은금융망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참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참가기관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정책을 마련하였다.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개방성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희망기관에 대해서는 차액결제 직접참가를 허용하고, 여타 기관에 대해서는 간접참가하도록 참가방식을 명확히<sup>80)</sup> 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재해 발생 시에도 결제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대체근무장소 등에 추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참가제도를 개선하여 한은금융망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 코로나19 확산 대응조치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4월 지급결제 부문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금융기관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순이체한도의 70%에서 50%로 인하하였다. 또한 국제기준(PFMI)<sup>81)</sup>에 맞춰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매년 10% 포인트씩 인상하려던 당초의 인상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하였다. 동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규모가 총 10.1조 원 정도 줄어들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었다.

80) ①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보유, ②지급준비금 예치 및 한국은행의 결제유동성 공급 대상, ③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자료제출 포함) 대상, ④차액결제리스크 관리 능력 보유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은 차액결제에 직접참가하고, 여타 기관은 대행은행을 통해 차액결제에 간접참가 하도록 하였다.

81)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는 신용리스크를 완전히(100%)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Principle 4: Credit risk: An FMI should effectively measure, monitor, and manage its credit exposures to participants and those arising from its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processes. An FMI should maintain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to cover its credit exposure to each participant fully with a high degree of confidence.

표 III- 17.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						
		기존	2020.4	2020.8	2021.8	2022.8	2023.8	2024.8
변경전	70		70	80	90	100	100	100
변경후			50	50	70	80	90	100

자료: 한국은행

이와 함께,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에 농업금융채, 수산금융채, 일반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한시적(2020년 5월 25일~2021년 3월 31일)으로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조달 부담을 완화하였다.

표 III- 18.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대상 담보증권 범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주금공 MBS, 산금채, 중금채, 수출입금융채,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한 증권</li> </ul>	(좌 동)	상시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은행채권,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sup>1)</sup></li> </ul>	2020년 5월 25일~2021년 3월 31일

주: 1)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료: 한국은행

### 지급결제 혁신 관련 연구 강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암호자산, 분산원장기술 등 지급결제 혁신과 관련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였다.

CBDC와 관련해서는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CBDC 연구 및 기술 전담조직을 금융결제국 내에 신

설하고 CBDC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특히 가상의 제한된 환경에서 CBDC 및 관련 시스템의 주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계획을 2020년 4월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CBDC 설계 요건 정의 및 구현기술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컨설팅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중에는 가상환경에서의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와 이에 따른 「한국은행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2020년 6월)하였으며 외부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증권대금동시결제를 분산원장기술로 구현하는 모의테스트를 2020년 4월 중 완료하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자산과 관련한 규제 현황 및 방향 등을 검토하였으며,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 라.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4년간 수행해 온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산하 지급결제회의(WGPMI, Working Group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의 의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아울러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회원으로서 글로벌 주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CBDC 파일럿 프로그램 수행경과,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시행 등을 국외에 소개하였다. 또한 최근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보고서 집필진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와 아시아 역내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2020년 11월에는 실시간 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유럽중앙은행(ECB) 및 헝가리중앙은행의 전문가들과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국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였다.

## 6. 외환 및 국제협력

### 가. 외국환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시장안정화 내역 공개 등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불합리한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다.

####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한 외환시장 안정 노력

2020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미·중 갈등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동 요인들이 원/달러 환율 등 국내 외환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잠재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동성 확대 시에는 적시에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하였다.

특히 2020년 3월 중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제금융시장 및 국내 외환부문의 불안이 심화되었던 시기에는 국외사무소와 연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각국의 정책대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등<sup>82)</sup>을 개최하여 국내 외환부문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앞서 마련된 외환부문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외환건전성제도 조정 등의

조치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내 외환부문의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였다.

한편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 및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외환부문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한편,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실시 등 시장안정화 조치의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과도 긴밀하게 소통하였다.

####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시행

한국은행은 2018년 5월 정부와 함께 마련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시장안정화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sup>83)</sup> 2020년에는 2019년 4/4분기부터 2020년 3/4분기까지의 분기별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하였다.

표 III - 19. 외환당국 외환 순거래 내역

(억 달러)

1단계(반기별)		2단계(분기별)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19년 3분기	19년 4분기	20년 1분기	20년 2분기	20년 3분기
-1.87	-38.00	-28.70	0.00	-58.51	-3.45	0.00

자료: 한국은행

82)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미 연준 FOMC 회의 영향, 이란의 대미 보복공격 영향 등을 주제로 6회),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주요국 주가 및 유가 급락, 미 대선 결과 등을 주제로 3회) 등을 개최하였다.

83) 1단계로 2019년 상반기까지는 반기별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2단계로 2019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 외환거래분야 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2020년 중 정부와 함께 대국민 외환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외환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및 외환거래 감독기관 회의 등에 참여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환전 및 송금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sup>84)</sup>,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 면제제도 도입<sup>85)</sup>, 외환서비스 공급 확대<sup>86)</sup>, 거래절차 간소화 및 감독효율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나. 외화자산 운용업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대외지급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을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원칙 하에 운용하고 있다.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위주로 투자함으로써 외환보유액의 유동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 흐름의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외환보유액 규모 및 구성

2020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31억 달러로

2019년 말에 비해 343억 달러 증가하였다.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외환(유가증권, 예치금 등)이 4,301억 달러로 2019년 말 대비 322억 달러 증가한 가운데 SDR과 IMF 포지션은 각각 34억 달러와 48억 달러 수준이었다. 금은 48억 달러로 2019년 말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II - 20.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 (기말 기준)

(백만 달러)

	2018	2019(A)	2020(B)	증감(B-A)
외환보유액	403,694	408,816	443,098	34,282
외환	393,332	397,876	430,117	32,241
SDR	3,427	3,352	3,371	18
IMF	2,140	2,793	4,815	2,022
금	4,795	4,795	4,795	0

자료: 한국은행

## 외화자산 구분 운용

한국은행은 운용목적에 따라 외화자산을 현금성자산과 투자자산으로 구분하고 이중 투자자산은 운용방식에 따라 직접투자자산과 위탁자산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다.

현금성자산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외화자금의 빈번한 유출입 및 일시적인 외화자금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매각 시의 거래비용이 적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국채, 예치금 등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직접투자자산은 높은 수준의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 수익 획득이 가능하도록 정부채, 정부기

84)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상법상 회사와의 위·수탁계약을 허용하여 고객이 항공사, 면세점, 편의점, 택배업체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소액 해외송금의 경우 인근 금융기관(우체국 등),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85)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규제에 공백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규제확인 신청 후 30일 이내에 회신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규제 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 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86) 비은행 금융기관(증권사, 카드사 등)의 송금·환전 관련 외환거래업무 수행범위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분할·합병 시 외환업 등록요건 예비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채,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채 등 주요 국제통화로 발행된 장·단기 채권으로 구성하고 있다. 한편 자금 유출입 등으로 현금성자산의 규모가 상당폭 변동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자산과의 자금이관을 통해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위탁자산은 외부 전문성 활용, 투자방식의 다변화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운용하고 있으며, 투자대상에는 채권과 함께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2020년 말 한국은행 외화자산 중 현금성자산은 5.1%, 직접투자자산은 73.9%, 위탁자산은 2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 - 21. 외화자산<sup>1)</sup> 구성 내역 (기말 기준)

	2018	2019(A)	2020(B)	증감(B-A)	(%, %p)
<b>1. 자산별</b>					
현금성자산	5.3	4.6	5.1	0.5	
투자자산					
직접투자자산	76.4	74.6	73.9	-0.7	
위탁자산	18.3	20.8	21.0	0.2	
<b>2. 통화별</b>					
미달러화	69.8	69.1	67.7	-1.4	
기타통화	30.2	30.9	32.3	1.4	
<b>3. 상품별</b>					
예치금	5.0	5.0	7.1	2.1	
유가증권					
정부채	42.9	44.6	44.5	-0.1	
정부기관채	18.0	15.8	14.4	-1.4	
회사채	13.7	13.4	13.6	0.2	
자산유동화채	12.8	12.5	11.5	-1.0	
주식	7.6	8.7	8.9	0.2	
계	100.0	100.0	100.0	-	

주: 1) <표 III - 20>의 외환 중 한국은행 외화자산  
자료: 한국은행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화자산 유동성 및 안전성 제고 노력

2020년 상반기 중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우려로 글로벌 주가 및 금리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sup>87)</sup>되었으나,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등 완화적 통화정책과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빠르게 반등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었던 3월 중 보유채권 매각 등을 통해 국내 외화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시장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유동성 자산인 국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유동성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외화자산을 운용하였다.

하반기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당초 운용계획에 맞추어 외화자산 운용을 정상화하였다.

한편 외화자산 구성에 있어서는 유동성 확충을 위해 현금성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투자자산의 비중은 축소하였다. 투자자산 내에서는 주요국 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확대되었다.

통화별로는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하반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미달러화의 비중을 전년에 비해 축소하였다.

상품별로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예치금 비중을 확대하고, 정부기관채 및 자산유동화채 비중은 축소하였다. 또한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된 가운데 글로벌 투자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회사채 및 주식 비중을 소폭 확대하였다.

87) 미국 S&P500지수의 경우 2~3월 중 34% 급락한 이후 연말까지 68% 상승하여 연중 15% 상승을 기록하였다.

## 외화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외화자산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팬데믹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외화자산의 안전성 및 유동성 수준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위기 상황별 비상대응계획을 정비하고 전산·결제시스템 등의 재해복구 훈련을 실시하였다.

조직운영 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외사무소 운용데스크의 업무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본점 내 야간데스크를 운영하고, 거래, 결제, IT시스템 등 핵심인력에 대해 재택 및 분산근무를 실시하는 등 외화자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외에 외화자산 운용에 따른 각종 리스크 한도 및 지표 관리의 전산화, 자금결제 프로세스의 개선 등을 통해 외화자산 리스크관리의 효율성 및 시의성을 제고하였다.

## 국내 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 발전 지원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 거래기관 및 위탁운용사로 국내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중 외화자산의 직접운용 과정에서 5개 국내 증권사와 외화채권을 거래하였으며, 3개 국내 자산운용사에 중국(4.4억 달러) 및 선진국 주식(6.0억 달러) 일부를 위탁운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의 운용 실적 등 운용역량 축적 상황을 보아가며 국내 금융기관을 꾸준히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I - 22. 외화자산 운용 시 국내 금융기관 활용 현황

유형	상품	대상기관 <sup>1)</sup>	규모	개시시기
외화채권의 매매거래	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증권사 (5)	107억달러 <sup>2)</sup>	2018년 1월
주식의 위탁운용	중국 주식	자산운용사 (3)	4.4억달러 <sup>3)</sup>	2012년 6월
	선진국 주식	자산운용사 (2)	6.0억달러 <sup>3)</sup>	2019년 4월

주: 1) ( ) 내는 거래기관 수

2) 2020년 중 거래금액 기준

3) 위탁원금 기준

자료: 한국은행

## ESG자산 투자 확대

한편 한국은행은 투자대상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초점을 두는 ESG 투자<sup>88)</sup>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2020년 말 현재 위탁운용을 통해 ESG 관련 주식에 10.8억 달러 투자하고 있으며, 그린본드 등 ESG 관련 채권에도 43.8억 달러 투자하고 있다. 향후에도 글로벌 ESG 투자 확대 추세, 외환보유액의 공적 책임성 강화, 투자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 투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88) 투자 의사결정 시 사회책임투자 및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요인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는 투자를 말한다.

표 III- 23. ESG 관련 자산 투자 현황

(억 달러)

운용	상품	규모 <sup>1)</sup>
직접	채권	34.9
위탁	주식	10.8
	채권	8.9
합계		54.5

주: 1) 시가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외화자산 운용분야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 외화자산 운용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가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였다.

2020년 중에는 현재 외화자산 통화구성 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주요 국제기구들(World Bank, IMF, BIS)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 결과 현행 외화자산 통화구성 결정방식이 대체로 글로벌 최적관행(best practice)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뉴욕연준, 호주재무관리청(AoFM) 등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전세계 외환보유액 운용의 최근 흐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베트남 중앙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경험을 전수하였다.

### 다.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글로벌 협력채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및 주요국의 정책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상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협력·교류 활동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이어나갔다.

BIS 이사국 활동을 포함하여 G20, IMF와 같은 글로벌 국제기구 및 협의체 회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금융계와의 정책공조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제 공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ASEAN+3, SEACEN(South East Asian Central Bank), 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등 역내 협의체의 활동 및 논의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

한국은행은 글로벌 국제기구 및 협의체에서의 정책공조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데 기여하였다.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14회) 및 IMF·세계은행 회의(2회)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 방안 등 금융경제 현안과 중장기 정책과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이 국제금융계 차원의 정책공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BIS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BIS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BIS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방향 등의 결정에 기여하는 한편 주요국의 경제·금융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책공조·조율을 강화할 수 있었다.

정부와 공동으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4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5회)와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특별회의(3회)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과 세계경제 회복, 저소득국 부채상환유예 방안 및 향후 부채 대응 체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금융규제·감독, 금융포용,

스태이블 코인 등 금융부문 이슈, 양질의 인프라 투자원칙, 디지털화에 따른 국제조세 과제 등의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표 III - 24.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2020년 중)

회의명	주요 의제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 (1월 바젤, 3·4·5·6·7·9·11월 화상회의)	세계 금융경제 현안, 비은행 금융 중개, 국가간 지급서비스, 빅데이터와 중앙은행, BIS의 중장기 전략 등
IMF·세계은행 회의 (4·10월 화상회의)	세계경제 전망, 세계 금융안정 상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과제, IMF·WB의 회원국 지원 방안 등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2월 리야드, 4·7·10월 화상회의, 3·11월 특별 화상회의)	코로나19 대응과 세계경제 회복, 부채상환유예 방안 및 향후 부채 대응 체계, 국가간 지급 서비스 개선, 금융규제 및 감독, 금융포용, 스태이블 코인, 양질의 인프라 투자, 국제조세 등

자료: 한국은행

## 역내 금융협력관계 강화

한국은행은 ASEAN+3, EMEAP, SEACEN 등 아태지역 국제기구·협의체에서의 금융경제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역내 회원국 간 금융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였다.

우선 ASEAN+3에서는 정부와 공동으로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sup>89)</sup>(1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2회) 및 실무회의(3회)에 참석하여 IMF 비연계자금 비중 확대, 역내통화 활용 제도화 등을 반영한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개정 협정문을 승인하여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EMEAP 총재회의(2회), 특별 컨퍼런스콜(2회) 및 총재/금융감독기관장 회의(1회)와 SEACEN 총재회의(1회)에 참석하여 코로나19의 영향 및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 디지털화, CBDC 등 최신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SEACEN의 EXCO(Executive Committee) 자문위원회<sup>90)</sup> 위원으로서 SEACEN 센터의 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표 III - 25. 역내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2020년 중)

회의명	주요 의제
제23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9월 화상회의)	역내 및 세계 금융경제 동향,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 등
제20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9월 화상회의)	각국 경제 및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 3국간 역내 금융협력 방안 등
제25차 EMEAP 총재회의 I (8월 화상회의)	코로나19와 중앙은행의 과제 등
제25차 EMEAP 총재회의 II 및 제9차 EMEAP 총재/금융감독기관장 회의 (11월 화상회의)	경제 전망 및 코로나19의 장기 영향, 중앙은행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은행 부문의 역할 등
제56차 SEACEN 총재회의 (12월 화상회의)	중국의 CBDC 프로젝트 현황 등

자료: 한국은행

##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 대해 한국은행 정책경험 공유 강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외환정책 및 외환보유액 관리 등 중앙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경험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금융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앙은행

89)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5월에서 9월로 연기되어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매년 ASEAN 10개국 중 1개국과 한·중·일 3개국 중 1개국을 순차적으로 공동의장국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일본과 베트남이 공동의장국을 수임하였으며, 2021년에는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담당한다.

90) SEACEN 센터 소장의 조직 및 급여체계 개편 업무를 지원하고 신규 인력 채용 자문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현재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태국과 스리랑카 중앙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졌다.

지식교류 프로그램(KPP,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sup>91)</sup>은 사전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수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교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중앙은행 간 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내실있는 정책자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몽골(2017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을 지식교류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등 그동안 동남아시아에 치중되었던 사업을 북방국가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한 국제행사인 「2020 북방포럼」(10월 30일)에서 6개 북방국가<sup>92)</sup>와 「중앙은행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표 III- 26. 지식교류 프로그램(KPP) 실적 (2020년 중)

협력대상국	사업과제
베트남	외환보유액 관리 관련 법적 체계 및 투자 프로세스 강화
캄보디아	통화정책 및 외환정책 운영
몽골	공급교란 및 외부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 전략
네팔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금융안정
스리랑카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정책수단 및 데이터 수집
우즈베키스탄	자본시장 자유화 및 외환정책

자료: 한국은행

또한 SEACEN 센터와의 공동연수(11월)를 회원국 중앙은행 직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표 III- 27. SEACEN 센터 온라인 공동연수 실적 (2020년 중)

주제	참가 인원
Monetary and Macroeconomics Policy in the time of COVID-19 (11월 16~20일)	14개국 41명

자료: 한국은행

###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 확대

한국은행은 2020년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또는 협의체에 출자금 2억 6,178만 달러, 출연금 2,914만 달러 등 총 2억 9,092만 달러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 제18차 재원보충에 따른 출자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가입 관련 출자,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African Development Fund) 재원보충 등에 따라 출자·출연금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한 출자·출연 규모는 총 172억 달러에 이른다.

한편 2020년 말 한국은행의 IMF에 대한 용자 규모는 9억 6,997만 SDR이다. 이 가운데 신차입협정(NAB, New Arrangements to Borrow)에 따른 용자 규모는 1억 4,335만 SDR,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PRGT,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차입약정<sup>93)</sup>에 따른 용자 규모는 8억 2,662만 SDR이다. 2020년 중 총 용자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5,251만 SDR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차입협정에

91) 한국은행의 업무 관련 지식, 정책수행 경험, 한국의 금융시스템·인프라 발전 경험 등을 개발도상국 등의 중앙은행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 사업을 말한다.

92)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벨라루스

93) IMF가 저소득국가에 대한 양허성 용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 국가와 체결하는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 체결하였으며 2013년 처음 용자를 실시하였다.

따른 용자가 4,505만 SDR 감소한 반면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 차입약정에 따른 용자가 5억 9,756만 SDR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III- 28.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현황

(백만 달러)

	2019년 말 (A)	2020년 말 (B)	증감 (B-A)
출자금	15,916	16,178	262
IMF	11,861	11,861	0
IBRD	287	311	24
IDA	1,982	2,136	154
ADB	293	293	0
AfDB·AfDF	504	539	35
AIIB	748	748	0
CABEI	0	34	34
기타	241	256	15
출연금	976	1,005	29
IMF	72	78	6
IBRD	34	34	0
ADB·ADF	648	671	23
IDB·MIF	161	161	0
IIC	40	40	0
기타	21	21	0
출자·출연금 합계	16,892	17,183	291

자료: 한국은행

표 III- 29. IMF에 대한 용자 현황

(백만 SDR)

	2019년 말 (A)	2020년 중		2020년 말 (D=A+B-C)	증감 (D-A)
		용자(B)	상환(C)		
NAB	188	0	45	143	-45
PRGT	229	600	2	827	+598
합계	417	600	47	970	+553

자료: 한국은행

## 7. 조사통계

### 가. 조사연구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국제경제, 성장, 물가, 고용 등 국내외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의 경제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1) 본부의 조사연구

#####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2020년 중 경제 현안 관련 조사연구는 코로나19 확산이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과거 전염병 발생 사례, 주요국 간 교역관계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를 점검하였으며<sup>94)</sup> 감염병 확산에 따른 서비스교역 위축,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 세계교역에 나타난 주요 변화도 살펴보았다.<sup>95)</sup>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하였다. 먼저 코로나

19는 내수 및 교역 둔화, 제조업 생산 차질 등을 통해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96)</sup> 또한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대면활동의 부진 지속, 고용 및 소득여건의 개선 지연 등으로 인해 소비 회복이 제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sup>97)</sup> 한편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요변화, 반도체 경기 등을 점검하여 수출여건의 변화를 평가하였다.<sup>98)</sup>

코로나19 확산은 고용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부문 현안도 비중있게 분석하였다. 우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취약성은 저소득, 저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취업자수 감소도 대부분 취약부문 일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99)</sup> 또한 최근 일시 휴직자수가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향후 고용회복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sup>100)</sup>

물가 측면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은 대면서비스 품목과 같은 수요민감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01)</sup> 주요 선진국에서도 봉쇄조치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대체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감염병 확산과 더불어 국제유가 하락, 무상교육 확대 등도 소비자물가의 오름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이후 예상되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금번 위기 이후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 등 글로벌 차원

94) 코로나19 확산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경제전망보고서, 2020년 2월)

95) 최근 세계교역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전망(국제경제리뷰, 2020년 12월)

96) 코로나19 확산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0년 3월)

97)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제약요인 점검(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0년 9월)

98)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이후 수출여건 점검 및 전망 평가(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0년 6월)

99)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BOK 이슈노트, 2020년 8월)

100) 일시휴직자 현황 및 평가(BOK 이슈노트, 2020년 9월)

101) 코로나19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BOK 이슈노트, 2020년 11월)

에서의 경제구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02)</sup> 또한 향후 국가간·계층간 성장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으며<sup>103)</sup> 가계저축률이 높아진 상태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04)</sup> 아울러 금변 위기가 혼인·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고령화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sup>105)</sup>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인구고령화 등 가계의 소비성향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sup>106)</sup> 또한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비중 확대 등 글로벌 분업체제 참여구조 변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07)</sup>

아울러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

진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통화정책의 내생성, 불확실성 확대 등 최근의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한 거시계량모형 BOK20을 개발하여 모형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경제연구원 조사연구 강화

경제연구원에서는 중장기 조사연구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영향<sup>108)</sup>,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구조 변화<sup>109)</sup>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분석에 연구역량을 집중 투입하였다.

금융·외환시장 리스크 요인<sup>110)</sup>, 부동산<sup>111)</sup>, 통화정책<sup>112)</sup>, 산업정책<sup>113)</sup>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디지털화폐<sup>114)</sup> 등 새로운 금융경제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결과도 발표하

102)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단행본, 2020년 6월)

103)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BOK 이슈노트, 2020년 12월)

104)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가계저축률 상승 고착화(level-up) 가능성(조사통계월보, 2020년 11월)

10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BOK 이슈노트, 2020년 12월)

106) 최근 소비성향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조사통계월보, 2020년 2월)

107) 우리나라 글로벌 분업체제 참여구조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친 영향(조사통계월보, 2020년 12월)

108)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2020년 7월), 코로나19 팬데믹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2020년 8월),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BOK 이슈노트, 2020년 9월)

109)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2020년 6월)

110) 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행태 및 환율변동성 완화 효과(BOK 경제연구, 2020년 2월), Network-Based Measures of Systemic Risk in Korea(BOK 경제연구, 2020년 3월), Cross-border Trade Credit and Trade Flows during Financial Crises(BOK 경제연구, 2020년 6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조사통계월보, 2020년 10월), Credit Market Frictions and Coessentiality of Money and Credit(BOK 경제연구, 2020년 11월), 자본유입과 물가상승률 간의 동태적 상관관계 분석: 아시아의 8개국 소규모 개방경제를 중심으로(BOK 경제연구, 2020년 12월)

111) House Prices and Household Consumption in Korea(BOK 경제연구, 2020년 5월), Consumption Dynamics and a Home Purchase(BOK 경제연구, 2020년 12월)

112)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BOK 경제연구, 2020년 1월), The Excess Sensitivity of Long-term Interest rates and Central Bank Credibility(BOK 경제연구, 2020년 12월)

113)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성 간 관계분석: 사업체 자료 이용(BOK 경제연구, 2020년 9월),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기업의 내수전환 결정요인 분석(BOK 경제연구, 2020년 9월)

114)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Tax Evasion, Inflation Tax, and Central Bank Independence(BOK 경제연구, 2020년 12월)



였다. 또한 노동생산성<sup>115)</sup> 및 성장<sup>116)</sup>,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sup>117)</sup> 등 당면한 구조적 이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중장기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전망 모형<sup>118)</sup> 및 최신 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sup>119)</sup> 등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도 꾸준히 발표하는 한편 북한경제<sup>120)</sup>에 대해서도 연구를 지속하였다.

###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및 교류 지속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및 교류와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연구 역량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차원에서 본격화되기 전에 「2020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취소를 결정하였으며, 「2021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미개최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였다.

반면 화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연구 강화 노력은 꾸준히 이어 나갔다. 9월에는 「2020 Annual Meeting of the CEBRA」, 10월에는 「2020

FMA Annual Meeting」 Kafa 세션을 한미재무학회와 공동 주최하였다. 이를 통해 최신 경제이론에 대한 수준 높은 강연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대내외 연구기관과 교류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12월에는 「한·일 중앙은행 공동 리서치 워크숍<sup>121)</sup>」을 개최하여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 서로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양국 중앙은행의 연구 성과와 지식을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외 석학들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거시건전성 등에 관한 공동연구도 활발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 부서 간 협업연구 강화

새로운 금융경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업무 수행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외부연구용역 및 부서간 협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연중 총 4차례의 「연구위원회<sup>122)</sup>」를 개최하여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연구업무를 조율하였으며, 외부연구용역,

115) 2001년 이후 한국의 노동생산성 성장과 인적자본: 교육의 질적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BOK 경제연구, 2020년 4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 둔화 요인 분석(BOK 이슈노트, 2020년 6월),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BOK 이슈노트, 2020년 7월)

116) 산업구조조정이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BOK 경제연구, 2020년 6월),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을 하락과 원인(BOK 경제연구, 2021년 1월)

117)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08년 금융위기 전후 전·후방 참여 효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BOK 경제연구, 2020년 5월)

118) 상태공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월별 GDP 추정: 깃스표본추출 접근(BOK 경제연구, 2020년 1월), Common Factor Augmented Forecasting Models for the US Dollar-Korean Won Exchange Rate(BOK 경제연구, 2020년 2월), Vulnerable Growth: A Revisit(BOK 경제연구, 2020년 10월)

119) Macroeconomic and Financial Market Analyses and Predictions through Deep Learning(BOK 경제연구, 2020년 9월)

120)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에서 보유외화 감소가 물가·환율에 미치는 영향(BOK 경제연구, 2020년 1월), 북한 「경제연구」로 분석한 경제정책 주제 변화: 텍스트 마이닝 접근법(BOK 경제연구, 2020년 2월), 북한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대중수입을 중심으로(BOK 경제연구, 2020년 3월), 북한 비공식금융 실태조사 및 분석 평가(BOK 경제연구, 2020년 7월),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을 추정: 1956~1989년(BOK 경제연구, 2020년 7월), 북한의 자본소득 추정 및 시사점(BOK 경제연구, 2020년 11월)

121) 2017년부터 일본은행 금융연구소와의 공동 리서치 워크숍을 매년 번갈아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122) 위원장(부총재), 부위원장(경제연구원 담당 부총재보), 12인의 운영위원(주요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외 공동연구 및 부서 간 협업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연구주제를 적극 발굴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정책여건 하에서 시급한 정책현안 연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위기 상황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조사연구 자료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부서 간 협업 연구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 (2)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지역본부는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금융안정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역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경제 관련 각종 통계 편제, 주요 현안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유관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과제 발굴이나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응정책 등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제공·발표하였다.

###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강화

지역본부는 지역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대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한 「지역경제보고서」를 매

분기 작성하여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아울러 전국적 관심도가 높은 7대 주력 제조업(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디스플레이·조선·휴대폰)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동산업의 동향을 본부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하였으며, 지역경제 관련 여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보고서」내 현장리포트에 수록하는 등 지역산업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업경기조사, 소비자동향조사,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기업경영분석 등 지역경제의 동향 파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정기적으로 편제하여 제공하였다.

###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지역본부는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지역 내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020년에는 지역경제 혁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자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진단자료, 온라인쇼핑 성장, 지역상품권 도입 등 지역경제 현안 분석자료,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 운용성과 점검자료, 지역 내 소비구조, 인구변동 등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심층분석자료 등을 작성<sup>123)</sup>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하였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연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경기지역 대기업-

123) 2020년 중 총 79건의 자체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4건은 지역본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중소기업 연계성 분석 및 균형발전 방안, 위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정주·방문 인구 추정 및 경제적 영향 분석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sup>124)</sup>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 지역사회와의 연구교류 강화

지역본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비대면 소통 수단 등을 활용하여 지역 유관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의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한편 원격근무·교육 확산으로 언택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지역본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발전 방안,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및 육성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sup>125)</sup>하여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방안, 지역 내 생산·분배 간 불일치 요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현안 및 정책과제에 대한 지역경제포럼을 개최<sup>126)</sup>하여 지역사회와 관련 주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 및 소통 강화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동향 관련 정책 참고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주관 회의 등에 적기에 제공하여 대응방안 수립에 기여하였다.

한편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나 지역의 행정·경제중심지로서 조사연구·모니터링·교류협력 등을 특별히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sup>127)</sup>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3) 국외사무소의 조사연구

국외사무소는 관할지역 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동향분석<sup>128)</sup>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주재국 중앙은행·국제기구 주요 인사 및 금융경제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현지정보<sup>129)</sup>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브렉시트 협상, 미 대선 등 금융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각 국외사무소는 관할지역 경제환경 변화와 생산·소비·고용 등의 반응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본부에 제공하였으며, 각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면밀히 파악한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대면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웹 세미나 개최 및 참여,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유지·확충하였고 주요 이슈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124) 2020년 중 총 21건의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였다.

125) 2020년 중 총 5회의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26) 2020년 중 총 20회의 지역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127) 2020년 말 현재 12개 지역본부가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128) 2020년 중 총 109개의 조사연구 및 동향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다.

129) 2020년 중 총 538개의 현지정보를 작성하였다.

## 나. 통계

한국은행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 통화·유동성, 예금·대출 금리, 가계신용 등 전통적 통화금융통계 외에도 국민소득(GDP),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자금순환표 및 국제수지표 등 5대 국민계정통계와 함께 국제투자대조표,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기업경영분석, 기업경기(BSI) 및 소비자동향(CSI) 조사 등 18종의 국가승인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초자료 수집, 편제 인력 관리 등에서 애로가 커졌으나 작성통계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공표도 차질없이 수행하였다. 또한 통계 수요 및 작성 환경에 대응하여 뉴스 기사, 신용카드 및 스캐너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통계편제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이를 이용한 속보성 있는 경기지표 개발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국제기구, 학계, 정부 등과의 통계협력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대국민 통계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전면 재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III- 30. 한국은행 작성 국가승인통계 현황

부 문	종 류
국민계정	국민소득, 국제수지표,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민대차대조표 <sup>1)</sup> , 국제투자대조표, 대외채권·채무
통화금융	통화금융통계
가계부문, 미시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sup>2)</sup>
물가지수	생산자물가(PPI), 수출입물가(EPI, IPI)
기업통계	기업경영분석
경제심리	기업경기조사(BSI), 소비자동향조사(CSI), 경제심리지수(ESI)
금융안정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지급결제	지급결제통계
기 타	전국민금융이해력조사 <sup>3)</sup>

주: 1) 통계청과 공동

2) 통계청·금융감독원과 공동

3) 금융감독원과 공동

자료: 한국은행

### 통계 개선 및 확충

한국은행은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기술의 발전 등 최근 경제현상을 통계에 충실히 반영하고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기존 통계를 세분화하거나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통계이용자의 편의와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예금은행 산업별 대출금은 법인 및 비법인 등 기업형태별 세부 자료를 확충하였으며 중견기업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새로 편제함으로써 기업대출 및 중견기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수요에 부응하였다. 그리고 국제수지 및 국외투자통계 개편에 맞춰 2009년 이후 자금순환표의 국외부문을 소급편제하여 국민계정통계 간 정합성을 높였다.

아울러 G20, IMF 등이 주도하는 DGI-2<sup>130)</sup>의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분기 제도

130) Data Gaps Initiative: 2009년 G20 회의(런던)에서 시작된 국제 통계 개발·개선 사업으로 IMF와 FSB 주도 하에 주요 국제기구(BIS, ECB 등) 및 G20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사업(CDS, 구조화사업, 비은행금융기관 대외익스포지)을 완료(DGI-1)한 후, 2016년부터 2단계 사업(파생상품, 대외직접투자, 통계공유 등)을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DGI-2).

부문별 생산 및 소득 계정, 상세채권통계(Securities Statistics), 상세자금순환표(From-whom-to-whom Tables), 해외증권투자통계(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의 작성 준비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 밖에 기업경기조사(BSI)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하여 표본개편을 실시하였다. 2018년 법인세 신고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개편하였으며, 시험조사를 거쳐 8월부터 새로운 표본에 의한 통계 편제결과를 공표하였다.

### 국내외 통계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모임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 하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통해 국내외 통계협력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통계를 연구하고 최신 이론과 기법 등을 습득하기 위해 「한국은행 통계포럼」을 개최(11월)하였다. 동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딥러닝을 활용한 음성분류모형, 경제뉴스를 이용한 경제심리지수 작성 등에 관한 연구기법, 사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언어지능기술의 최신 동향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외부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 네트워크를 발전시켰다.

한편 통계청과의 통계협력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내 통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도모하였으며,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국 중앙은행 등이 개최한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여 새로운 국제통계기준의 안정적인 이행 및 정착 방안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였다.

### 통계서비스 향상

한국은행은 대학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제통계지표 해설 강좌」를 연 42회 개최하여 경제통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였다. 동 강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온라인 등 적절한 강의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실시하였다.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운영하면서 국제통계를 확충하고 웹페이지 표준 전환, 자동검증 기능 도입을 통한 데이터 정도 제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통계 이용자조사 결과를 가능한 반영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한편 통계 작성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경계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을 2020년 4월에 착수하여 2022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8. 국고 및 증권

### 가. 국고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국고금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고,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시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거래를 정부 회계제도<sup>131)</sup>에 맞추어 처리하고 정부와 상호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국고금 수급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고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국고금 수납 및 지급 현황

국고금 수납업무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sup>132)</sup>에서 취급하고 있다. 국고대리점은 일반 납부자들이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하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정부의 운용 국고금, 국고채권발행자금 등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고 있다. 2020년 중 국고대리점 등을 통해 수납된 국고금은 448조 원이며 한국은행에 직접 수납된 국고금은 1,637조 원이다.

한편 대부분의 국고금 지급업무는 국고전산망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 지출관의 국고금 이체

요청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권자 계좌로 국고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국고여유자금, 국고채권상환자금 등을 정부예금에서 지급하고 있다. 2020년 중 채권자 계좌를 통한 국고금 지급규모는 853조 원이며, 그 외 국고여유자금 운용 등 지급규모는 1,219조 원이다.

표 III- 31. 국고금 수납 및 지급

	2018	2019(A)	2020(B)	증감(B-A)
(조 원)				
<b>총수납</b>				
국고대리점 등 수납	438	444	448	5
정부예금 수납 <sup>1)</sup>	1,391	1,551	1,637	87
<b>총지급</b>				
채권자 계좌 지급	667	725	853	128
정부예금 지급 <sup>1)</sup>	1,141	1,258	1,219	-39

주: 1) 국고여유자금 회수 및 운용,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국고계정 간 대체 포함

자료: 한국은행

#### 국고대리점 현황

한국은행은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국고금 수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 유형에 따라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한다.<sup>133)</sup> 2020년 말 국고대리점은 1만 6,998개로 165개 감소하였으며, 국고대리점을 통한 수납금액은 427조 원으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131) 우리나라는 정부 회계제도를 「국가재정법」에 의해 수입·지출을 현금흐름에 따라 정리하는 현금주의와 「국가회계법」에 의해 경제적 거래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로 정리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한국은행은 현금주의에 따른 처리만 수행하고 있다.

132) 2008년부터 국고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을 국고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133) 국고수납대리점이란 은행 영업점을, 국고금수납점이란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원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영업점을 말한다.

표 III- 32. 국고대리점 현황<sup>1)</sup> 및 수납금액

(개, 조 원)

		2019(A)	2020(B)	증감(B-A)
개수	수납대리점	6,849(22)	6,572(22)	-277
	수납점	10,314(6)	10,426(6)	112
	계	17,163(22)	16,998(22)	-165
수납 금액	수납대리점	410	408	-2
	수납점	17	19	2
	계	427	427	0

주: 1) ( ) 내는 대상기관 수  
자료: 한국은행

### 국고전산망 운영

한국은행은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고금 지급을 실시간 전자이체 처리하여 재정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가운데 국고금 수납, 국세 환급 등 대량의 자료는 지정된 시간에 일괄 처리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국고전산망을 통한 국고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고전산망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전산장애 시 이메일 등 대체매체 혹은 재해복구센터<sup>134)</sup>를 이용하여 국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2020년 중 국고전산망을 이용한 일평균 처리 규모는 41만 9천 건, 19.7조 원으로 2019년 대비 각각 2.6%, 8.4%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sup>135)</sup>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134) 주전산센터가 마비되는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처리를 위한 백업 전산시스템이다.

135) 2020년 중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건수는 486만 건으로 전년(473만 건)대비 증가하였다.

표 III- 33. 국고전산망 처리 실적 (일평균)

(천 건, 조 원, %)

		2019	2020	증감률
건수	실시간 전자이체	44.5	49.6	11.5
	일괄 처리	364.0	369.7	1.6
	(국고금 수납)	313.1	312.9	-0.1
	(국세 환급)	51.0	56.8	11.5
	계	408.5	419.3	2.6
금액	실시간 전자이체	16.1	17.6	9.3
	일괄 처리	2.1	2.1	1.6
	(국고금 수납)	1.8	1.8	0.1
	(국세 환급)	0.3	0.3	10.4
	계	18.2	19.7	8.4

자료: 한국은행

###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 및 현황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2020년 한도는 40조 원으로 2019년과 동일하였다.

표 III- 34.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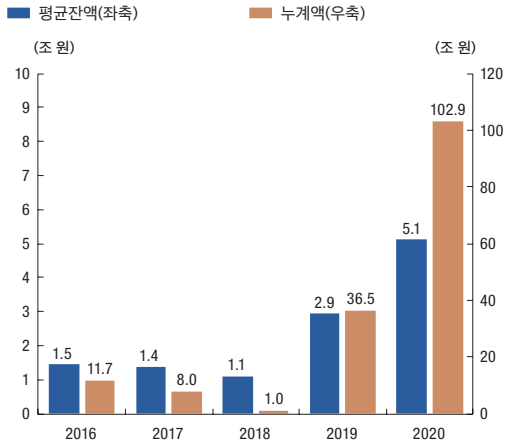
	2019(A)	2020(B)	증감(B-A)
통합계정	30,000	3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	8,000	-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	2,000	-
계	40,000	40,000	-

자료: 한국은행

2020년 중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규모는 평잔 기준 5.1조 원으로 2019년 대비 2.2조 원 증가하였으며 누계액 기준으로도 36.5조 원에서 102.9조 원으로 66.4조 원 증가하였다. 이는 추경 편성 등 정부의 지출규모가 증가한 가

운데 세입·세출 간 시점의 불일치, 세입여건 변화 등으로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한 대출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하였다.

그림 III- 19. 대정부 일시대출 평잔 및 누계액



자료: 한국은행

## 나. 증권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위탁에 따라 국고채권 및 재정증권의 발행·상환·등록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0년 중 국고채권<sup>136)</sup>은 경쟁입찰 등을 통해 174.5조 원이 발행되고 59.2조 원이 상환되었다. 그 결과 2020년 말 국고채권 발행잔액은 726.8조 원을 기록하였다. 재정증권<sup>137)</sup>은 경쟁입찰을 통해 연중 45.3조 원이 발행되었으며, 연내에 전액 만기 상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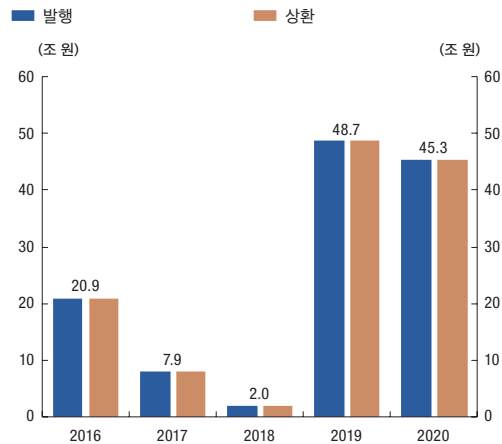
표 III- 35.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조 원)

	2019년 말 잔액	2020년 중		2020년 말 잔액
		발행	상환	
국고채권	611.5	174.5	59.2	726.8
3년	47.4	35.1	19.8	62.7
5년	99.3	34.0	24.2	109.1
10년	217.6	45.9	14.1	249.4
20년	124.8	13.0	1.1	136.7
30년	115.8	42.3	0.0	158.1
50년	6.6	4.2	0.0	10.8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 20.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sup>138)</sup>과 마찬가지로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의 국내 채권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5개 외국 중앙은행 및 1개 국제금융기구와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136) 정부가 중장기 재정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이다.

137) 정부가 회계연도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정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단기 국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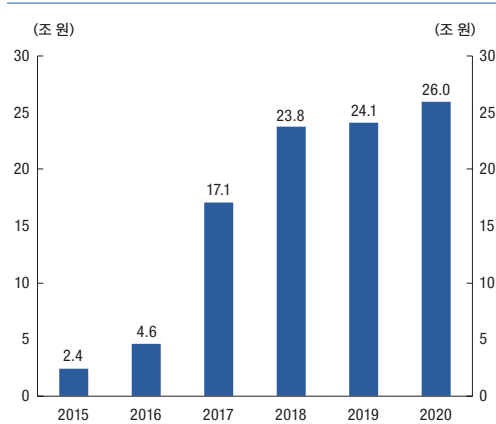
138) 현재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NY),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중국인민은행(PBOC), 호주 중앙은행(RBA), 프랑스 중앙은행(BDF), 독일 중앙은행(DBB), 캐나다 중앙은행(BOC), 네덜란드 중앙은행(DNB) 등이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이 투자 중인 26.0조 원 규모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보관 및 결제, 원리금 수령, 거래내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은행 간 협의<sup>139)</sup>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sup>140)</sup>

그림 III- 21.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제공 규모  
(연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 다. 기금관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위탁을 받아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운용·관리 업무<sup>141)</sup>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은 국고채권 발행, 예탁금의 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 연중 268.1조 원을 조달하여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일반회계 및 외국환평형기금 예탁 등으로 운용하였

다. 용자계정은 용자금의 원리금 회수 등으로 0.5조 원을 조달하여 국책사업에 대한 용자 등으로 운용하였다. 차관계정은 대외 원리금상환이 종료되어 전대차관 회수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등으로 연중 10.2조 원을 조달하여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

표 III- 36. 한국은행 기금관리 업무의 주요 내용

기금명	설치목적 및 주요 업무내용
공공자금관리기금	<p>정부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계정: 국고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일반회계 예탁,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li> <li>• 용자계정: 국민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대어</li> <li>• 차관계정: 국제협력기금, 외국 정부·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하는 차관자금을 관리</li> </ul>
공적자금상환기금	<p>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2003년에 설치</p> <p>2003~2006년 중 부담한 총 49조 원의 채무를 2027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전액 상환할 예정</p>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p>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저축 장려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6년에 설치</p> <p>매년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p>

자료: 한국은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연중 정부 출연금 339억 원 및 한국은행 출연금 339억 원 등으로 677억 원을 조달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게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sup>142)</sup> 2020년 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6만 7천 가구이다.

139)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BIS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201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40)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 4>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1) 수입금의 징수, 지출금의 지급 및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말한다.

142) 저축만기 시 저축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은 연 0.9~1.5%(저소득 가입자는 연 3.0~4.8%) 수준이다.

한편 기금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적인 여  
유자금을 RP, MMDA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  
용하고 있다.

표 III- 37. 기금 조달(운용) 현황

(십억 원)

	2019(A)	2020(B)	증감(B-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178,418	268,085	89,667
용자계정	602	470	-132
차관계정	100	219	119
공적자금상환기금	8,458	10,223	1,765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71	6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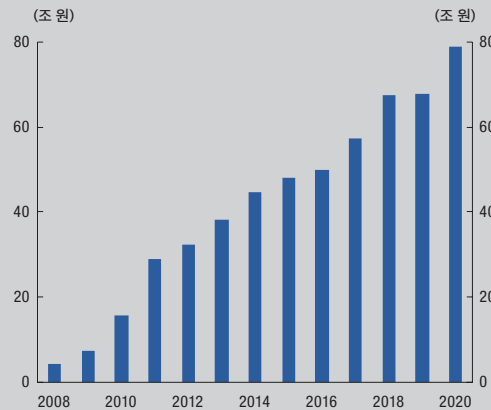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참고 III-4.

###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산 다변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성 등으로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의 한국채권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외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등 외국 공적기관의 국내채권 보유규모는 2008년 말 4.4조 원에서 2020년 말 78.8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III- 22. 외국 공적기관의 국내채권 보유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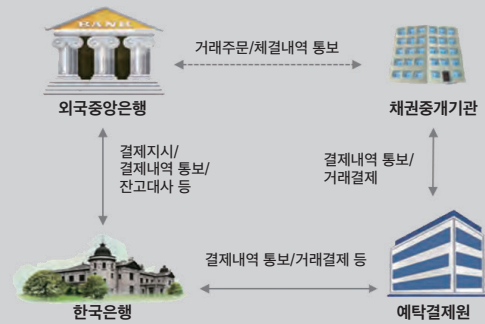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외국 공적기관의 한국채권 투자가 해당국의 대외준비금 운용 등 공적인 성격을 갖는 데다 자금 유출입 정도가 낮아 우리나라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015년부터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채권에 투자하는 외국 공적기관의 경우에도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해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은 한국은행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은 외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및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할 경우 이들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채권의 보호예수, 원리금 수령, 매매대금 및 증권 결제, 원천징수, 거래내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한국은행은 5개 외국 중앙은행 및 1개 국제금융기구를 대상으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림 III- 23.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구조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는 투자 관련 리스크를 축소시켜 외국 공적기관의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자본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시켜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이후 한국은행은 다양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정례적인 국제회의를 통해 업무운영 경험 및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등 중앙은행 간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행은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업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9. 대외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중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셜미디어, 온라인 화폐박물관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중앙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민들의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 가. 국민과의 소통 확대

한국은행은 조사연구자료의 발간·배포, 각종 회의·행사 개최,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 화폐박물관 운영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조사통계월보」, 「BOK 경제연구」, 「해외경제포커스」 등 총 412건의 간행물과 보도자료 및 보도참고자료 366건을 생산·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한국은행의 주요업무와 더불어 코로나19, 미 대선 등 최신 이슈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책 및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를 듣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대상 평판조사<sup>143)</sup>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차보고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 주요 보고서와 기준금리 조정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수립과 업무수행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통화정책 워크숍<sup>144)</sup>」을 개최하여 코로나19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학계와 교환하고 한국은행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한층 높였다.<sup>145)</sup>

한편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먼저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정책대응 게시판을 신설하여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은행 역사 등을 담은 기념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디지털 화폐박물관을 개설하는 등 통합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대폭 확충하였다. 또한 대량주화 교환신청 시스템, 화폐박물관 개인관람 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은행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표 III - 38. 홈페이지(메인) 방문자 수 (기간 중)

프로그램	2018 <sup>1)</sup>	2019	2020
홈페이지 방문자 수	2,861	4,336	6,069

주: 1) 2018년 5월 16일 이후 통합 홈페이지 가동

자료: 한국은행

143) 여론조사 전문가관을 통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역할 충실성에 대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의 긍정 평가 비중이 2019년에 비해 확대되었다.(일반국민 2019년 38.1%→2020년 46.2%, 전문가 68.0%→72.7%)

144)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으며 전국 23개 대학에서 총 28명의 교수가 참석하였다.

145) 다만 기존에 개최해오던 「통화정책 경시대회」와 「청소년 경제 알기 UCC 동영상 공모전」은 다수 간 대면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최하지 않았다.



자료: 한국은행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한국은행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알기 쉬운 위조지폐」, 「한국경제의 발전과 한국은행」등의 퀴즈 이벤트를 개최하여 한국은행의 업무와 역사 등에 대해 홍보하는 한편, 댓글 이벤트로 수집한 한국은행 입행에 대한 궁금증을 직원들이 답변하는 유튜브 영상인 「입행이 궁금해」를 제작하여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복코노미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등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책자 및 보고서를 대담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수요자 친화적 동영상 제작하여 유튜브에 정기적으로 게시하면서 한국은행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통화정책방향 및

보도자료 기자간담회의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커뮤니케이션 운영 방식을 모색하여 지원하였다.

표 III- 39.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sup>1)</sup>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개설 시점	2013년 7월	2014년 8월	2014년 8월	2014년 10월
수록 콘텐츠 수(개)	901	1,720	1,555	1,273
구독자 수(명)	24,900	15,090	1,957	9,939

주: 1) 2020년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상설전시와 더불어 화폐기획전 「열차타고 떠나는 유라시아 화폐여행」과 갤러리기획전 「墨香(묵향)」을 개최하여 화폐와 예술을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였다. 또한 주말강좌·어린이 박물관교실 운영 등을 통

해 전시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 및 편의 증진에도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휴관과 제한적 운영을 반복한 결과 2020년 중 화폐박물관 관람객 수는 3만 1천명으로 전년 27만 7천명보다 24만 6천명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화폐박물관의 대국민 서비스 위축을 보완하고자 2020년 5월부터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도 지속해나가고 있다.

표 III- 40. 화폐박물관<sup>1)</sup> 관람자 수 (기간 중)

(천 명)

	2018	2019	2020
관람자 수	264	277	31

주: 1) 지역본부 화폐전시실 포함  
자료: 한국은행

이 밖에도 외환거래심사, 화폐발행, 통화정책 등 한국은행 업무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문의와 민원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III- 41. 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sup>1)</sup> (기간 중)

(건)

	2018	2019	2020
접수건수	1,234	1,385	1,420
처리건수	1,234	1,385	1,420

주: 1) 민원사무처리부 사후 등록 등으로 변동 가능  
자료: 한국은행

아울러 한국은행 직원들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중앙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비대면 성금지원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였다. 대면 봉사활동을 자제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도시락 급식 등에 필요한 성금을 지원하고 노후차량 교체 등 수요가 긴요한 복지단체에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림 III - 25. 한국은행 봉사단체 차량지원 (2020년 11월 12일)



자료: 한국은행

## 나. 대국민 경제교육 활동 강화

한국은행은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 및 한국은행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경제교육을 수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 온라인 연수 등 디지털 기반 교육을 크게 확충하였다.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경제 분야를 다루는 「한은금융강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대학 정규 과정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경영경제특강」 및 「기술경제세미나」를, 국민대학교에 「거시금융정책」을 각각 개설·운영하였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3월부터는 화상으로 전환하여 강의를 지속하였다.

청소년 대상 교육으로 「경제교육봉사단」<sup>146)</sup>을 활용한 「청소년 경제강좌」 및 「교사직무연수」를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sup>147)</sup> 차원에서 실업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경제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체제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

현장 경제교육 실적을 보면, 코로나19로 현장 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2020년 중 경제교육 실적은 예년 대비 크게 낮은 모습을 보이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양질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실시간 화상 강의를 실시하는 등 경제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sup>148)</sup>

표 III - 42. 현장 경제교육 실적<sup>1)</sup>

(회, 명)

	2018	2019	2020 <sup>2)</sup>
청소년교육	749 (33,659)	773 (29,615)	45 (2,123)
일반교육	587 (34,261)	710 (45,755)	139 (5,986)
합계	1,336 (67,920)	1,483 (75,370)	184 (8,109)

주: 1) ( ) 내는 교육인원수

2) 화상강의 포함

자료: 한국은행

책자, 동영상 등 매체를 통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제교육 책자를 개정하고 동영상 19편, 모션그래픽 2편을 각각 제작하였다.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일반인용)」 책자를 일반인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였다. 해당 단원과 연관되는 최근 이슈를 읽을거리에 수록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예시, 그래프 등을 추가하였다. 중앙은행 경제교육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통화정책 단원의 내용도 보강하였다. 아울러 학습자의 수요가 미디어 중심으로 재편되는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여 책자의 주요 내용 10편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 직원이 경제교육실 교수와 대담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사직무연수 등에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국민 경제교육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대내외 협력 활동을 강화하였다. 최근 경제교육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은행의 경제교육 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OECD

146) 대학생 중에서 적임자 선발을 통해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의 경제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

147)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금융소외계층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회계층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148)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 6> 「다양한 온라인 교육채널 확충」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sup>149)</sup>를 중심으로 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 밖에 국내 경제교육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도 강화하였다.

---

149) 금융경제와 관련하여 국가 간 정보 교환 및 국제표준(모범사례)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08년 5월에 설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특별기구이다.



## 참고 III-5.

###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은행의 역사와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은행 70년사」를 발간하여 지난 70년간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과 한국은행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변화와 도전에 대비하는 계기로 삼았다. 동 책자는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의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중앙은행제도와 통화신용정책의 변천사를 압축적으로 기술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그림 III - 26. 「한국은행 70년사」



자료: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발달 등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수요자 친화적인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였다.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공동제작한 TV 다큐멘터리 「혼돈시대의 중앙은행」은 총 3부작에 걸쳐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 역사라는 비교적 무거운 주제를 알기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홍보 및 교육콘텐츠로 활용하였다. 또한 웹툰 「함께 꿈꾸는 세상(작가: 유성연)」

을 유명 포털(네이버)에 연재하여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은행의 정책 수행 과정을 만화로 쉽게 풀어내어 한국은행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을 높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역사, 주요 정책·기능 등을 정리한 리플렛을 국내 주요 기관에 비치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창립 70주년 기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TV 다큐멘터리, 웹툰 등의 기념사업 콘텐츠를 함께 수록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은행의 역사, 화폐 변천사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한국은행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창립 70주년 기념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여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그림 III - 27. TV 다큐멘터리 「혼돈시대의 중앙은행」



자료: 한국은행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다양한 수단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림 III - 28. 창립 70주년 기념 홈페이지



자료: 한국은행

## 참고 III-6.

### 다양한 온라인 교육채널 확충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현장 경제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하여 콘텐츠 개발, 화상 강의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채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들이 경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모션그래픽 등을 제작하여 한국은행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재하였다.

그림 III- 29. 동영상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1편 「돈이란?」



자료: 한국은행

먼저 한국은행 발간 책자인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주요 내용 10편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금융시장, 통화정책 등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를 선정하여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교육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물가를 주제로 제작한 「세월 속에 숨겨진 물가의 비밀」에서는 자장면을 통해 본 구매력 변화, 가격과 물가의 차이 등 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청소년 수준에 맞추어 설명하였다. 또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수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리, 환율 등 핵심 경제지표를 설명하는 카드뉴스 8편을 동영상으로 구성하였다. 2019년에 이어 문학 속에

숨겨진 경제 개념을 설명하는 영상인 문학 속 경제 이야기 「로빈슨 크루소」, 「걸리버 이야기」 2편도 추가로 제작하였다.

그림 III- 30. 모션그래픽 「로빈슨 크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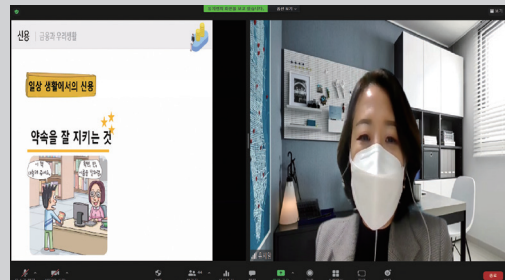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편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자와 소통하는 교육을 위해 실시간 화상 강의를 실시하였다. 「대학 전문강좌」 및 「교사직무연수」를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교육 콘텐츠 제작, 화상 강의 실시 등을 통해 비대면 상황에서도 대국민과 소통하는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림 III- 31. 비대면 「동계 초등교사 직무연수」



자료: 한국은행